



# 기독교일보



2024년 5월 1일 수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34호

## “큰 교회는 미자립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아는가”

### 제7회 사회적목회컨퍼런스와 제4차 목회자 취업박람회, 30일 성락성결교회서 열려

제7회 사회적목회컨퍼런스와 제4차 목회자 취업박람회가 30일 성락성결교회(담임 지형은 목사)에서 열렸다. 목회사회학연구소, 크로스로드 등 6개 단체가 주최했다. 주최 측은 출판·마을 목회·개인사업기술 전문직 등 각종 분야에서 상담 부스를 설치해 이종직을 원하는 목회자들과 상담을 진행했다.

여러 상담 부스 중 기술전문직 분야에 속한 탐비직업개발원이 눈에 띄었다. 탐비직업개발원은 에어컨설치, 제과제빵, 승강기관리사 등 각종 기술을 목회자들이 터득하고 이들의 생계적 자립을 돕는 단체다. 목회자들이 이 단체에서 교육받는데 필요한 비용 전액을 크로스로드(이사장 정성진 목사)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부스에선 탐비직업개발원의 에어컨설치 교육을 담당하는 김웅기 분향교회 목사가 목회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했다. 에어컨 설치·판매 관련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김 목사는 “탐비직업개발원에서 벽걸이아스탠드형 에어컨 설치 관련 기술을 일주일 만에 터득할 수 있다”며 “에어컨 대당 설치 시간이 3시간 밖에 되지 않고 하루 한 건 설치 당 20만원까지 수

익을 얻을 수 있어, 목회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고수익을 올리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 밖에 훈훈출판(소재웅 목사, 출판/문화), 겨자씨커뮤니티·마을학연구소(박홍래·민건동 목사, 마을목회), 카페 라운드리(이광복 목사, 개인사업), 라이프호프/굿미션네트워크(장진원 목사, NGO), 얼룩말식당(김철수 목사, 개인사업), 사람을 돕는 마을 사람들(김주선 목사, 사회복지), 라이프 재난복구(고영수 집사, 기술/전문직), 마을공작소(안준호 목사, 기술/전문직), 다함께 돌봄센터(라종준 목사, 사회복지)가 이종직 목회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들과 상담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1부 ‘한국교회 [살아] 있는가?’, 2부 ‘한국목회자 [살아] 있는가?’순으로 진행돼 이종직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했다. 1부 세미나에서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정성진 목사(크로스로드 이사장)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믿음이 있으나 행함이 없다”며 “과연 지역의 큰 교회는 미자립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지원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지역의 큰 교회가 작은 교



상담 부스에서 목회 이종직 관련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노형구 기자

회를 돌보지 않는 ‘사람의 나눔이 없기에, 기독교가 사랑과 희생을 예기해도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 결국 위기에 봉착한 것’이라고 했다. 정 목사는 “교회가 이기 아니라 행실로 생긴다면 작은 천국을 이루고, 결국 많은 이들이 교회로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는 “한국교회에 미래는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조사가 따르면, 소명을 후회하는 목회자 비율이 30%로 파악됐다. 이는 3년 전보다 8% 증가한 수치”라며 “이는 목회자의 성실성 결여라기보다, 기존 목회방식에 변화가 필

요하다는 방증이다. 전통적 목회 패러다임이 한계에 이르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울타리에 한정된 사역이 아닌, 삶의 현장에 녹아들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자 시급하다”며 “소형교회들은 특색에 맞는 목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한 조사에서 교인 숫자 100명 미만의 소형교회 목회자들 중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들의 목회 만족도는 약 77%로 파악됐다. 반면 소형교회 목회자 중 성장을 추구하는 목사들의 목회 만족도는 66%에 불과했다”며 “이는 소형교회 목회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을 섬기려는 목회적 욕구가 클수록 목회적 자존감이 비례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가운데 마을 목회가 대두된다. 곧 교회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외부의 다양한 자원과 결합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역”이라며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본질에 충실하다면, 그것을 표출하는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신앙생활 속에서 나와 이웃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새로운 일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회 (대안)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박홍래 목사(사회적목회포럼 공동대표)는 “여러 신학대학원들이 목회학석사(M.Div) 과정에서 이종직 관련 수업을 개설하기도 하나, 목회자의 이종직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마을 목회를 시작할 때 이종직 목회자들은 행정적 전문성 결여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이종직을 한다 해도 전문성 결여로 결국 목회자들이 단순 노무직으로 빠지는 경우가 더러웠다”며 “성공적인 이종직 목회를 위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박 목사는 또 “마을 목회에서 주민들에게 교회로 데려오기 위한 섬김으로 다가선다면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교회가 마을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섬기

는 방식이 성공적 마을 목회를 위한 전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영적 조정을 견지하면서, 비록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처럼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섬긴다면, 마을 목회는 기필코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개회예배에서 ‘나는 내 곁에서 이르(산명기 5장 30-31절)는 제목으로 설교한 지형은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은 하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라며 “마리아는 봉사로 분주했던 언니 마르다와 달리 예수님의 곁에 말씀을 들었다. 마리아를 꾸짖어달라고 요청한 마르다의 바람과 달리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멀어지면 생명력을 잃는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 목회자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질적 자리”라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이천 년 세계사를 변혁시키는 강력한 에너지기도 했다”고 했다.

이처럼 2부 세미나의 열린 포럼에선 정교수(실천신학), 박대성 목사(송학감리교회) 등이 목회자들과 토의했다.

노형구 기자

## 영화 ‘야소’…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되길

### 커넥트픽처스, 30일 제작보고회 및 VIP 시사회 개최

커넥트픽처스(대표 남기웅)가 기독교 단편 극 영화 (야소)의 제작보고회 및 VIP 시사회를 30일 오후 서울 명동 롯데시네마 에비뉴엘에서 개최했다.

시사회는 남기웅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영화 상영 이후 오윤진 감독이 영화 제작 계기 및 배경에 대해 발언했다.

오 감독은 “2021년 기독교 영화인 (담)을 찍고 그때 당시 마음이 뜨거웠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쓰다가 둘째 아이를 낳은 나이에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야소)의 시나리오가 쓰여졌고 아이를 낳고 육아에 매진하면 영화 제작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과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야소)를 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

었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여건이 정말 부족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많은 여건을 열어주셨다”고 했다.

그녀는 “이 영화는 여러 가지가 부족했지만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셔서 찍을 수 있었던 영화이다. 특히 저는 모든 과정에서 일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영화 제작을 하면서 너무 필요한 것이 많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화를 제작하면서 성화 레퍼런스를 찾으면서 동양화 성화를 찾아 봤지만 많지 않았다. 동양화로 성화를 그린 윤보 김기창 화백의 그림 몇 점을 찾아 봤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동양화를 전공하신 선생님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회의하면서 부탁을 드렸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동양화를 그려주셨다. 그래서 영화 중간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동양화로 그려주시고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며 “저는 조선시대에 예수님을 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상상할까 궁금했다. 그런데 김기창 선생님의 그림을 보고 놀랐으며 그것을 스크린에 담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상상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됐다”고 했다.

오 감독은 “이 시대는 사실 기적을 믿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어떤 누구도 기적을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으면 그분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고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걸 보셨으면 좋겠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좋은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계에서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뿐만 아니라 기독교 영화를 만들고 있는 많은 분이 계시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다. 미디어는 이 시대에 정말 소용돌이 아주 좋은 매체이며 미디어가 좋은 선교의 도구라 될 수 있으므로 기독교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고 싶어 하는 감독들에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



기독교 단편 극 영화 (야소)의 제작보고회 및 VIP 시사회가 열린 현장의 모습. ©최승연 기자

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녀는 “다음번에는 조선시대 개신교가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고 싶다. 선교사님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조선 땅에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했는지, 그 시대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조선 땅에 들어와 섬기기 어려웠을 그것을 위해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며 그것이 영화로 제

작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행사에서는 봉화현교회 호병기 목사가 발언하기도 했다. 봉화현교회는 영화 후원을 하기도 했다. (야소)는 한국 기독교의 말말이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와 존 로스 선교사의 한글성경 번역,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이 된 장대현교회 등을 모티브로 제작된 기독교 단편 극 영화이다. 최승연 기자

**8·9호선  
석촌역 10초**

석촌호수 · 한강을 품은  
최고의 입지!

**리버레이크 송파**

RIVER LAKE SONGPA

**8호선  
석촌역**

**9호선  
석촌역**

**계약금  
4천만원대!**

**분양가  
5억만원대!**

**시공예정사** **대우건설**

석촌역10초역세권 · 35층 한강조망권 · 잠실중심생활권  
중도금 무이자 · 송파 랜드마크 · 청약특장 무 · 35층 상향확정

**상담문의 02) 588-1800**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2021. 11. 23. (대지 전체 면적비율 63.7% 사용권원 확보 (사유지면적 4,259.90㎡ 대비 확보면적 2,717.76㎡ 비율 63.7%)

※조합원 자격기준 ■ 서울·경기·인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세대주(투기과열지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전)의 날로 한다.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 주택의 규모는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평형별로 확정한다. ■ 조합에 제출한 기업신청서에 신청한 평형 또는 납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조합원의 동·호수 결정은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 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 조합원 모집 차수 또는 동·호수에 따른 분양가격(조합원 부담금)에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분양가격(조합원 부담금) 상정의 방법으로 한다. ■ 건축관련 법규에 따라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관련법규와 허가신청의 조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부분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기존 기입한 조합원의 동·층·호수·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배경되는 세대배치 업무일지에 권한을 업무일지에 위임한다. ※상기 조건에는 각종 개발 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부담금은 추후 관련 법규 개정, 사업 인허가, 설계변경, 시공사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임’ 전기현 대표회장 “새 회기에 세기총 회관 마련”

### 최근 싱가포르에서 정기총회 열려... 신광수 사무총장도 연임

사단법인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가 최근 싱가포르 킹스롭튼 호텔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갖고 현 대표회장인 전기현 장로의 연임을 결정했다. 세기총 역사상 대표회장이 연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주셨고 받은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 다시 대표회장으로 역할을 맡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새로운 회기 세기총 회관을 마련하고 자유-평화-통일 기도회 등을 진행하는 등 세기총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 대표회장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면서 “세기총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세기총에 한 번 발을 디뎠으니 세기총만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세기총은 부흥,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1부 개회예배에선 공동회장 권케더린 목사의 사회로 지구촌선교회 위임선교단(단장 오주윤 목사)의 오프닝 공연이 있었으며 상임회장 김태성 목사의 기도, 공동회장 김기태 목사의 성경봉독, 테너 황진호 안수집사와 필리핀한인선교사합창단에 이어 8대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세기총의 사명’(막 16:15)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특별기도 순서에는 상임회장 이상열 목사가 ‘나라와 민족 및 위정자를 위해, 키르기스스탄 장금주 선교사가 ‘대한민국 국민과 750만 재외동포를 위해, 콜롬비아 지회장 김선호 선교사가 ‘라우, 아팔 전쟁 종식과 세계평화를 위해, 예장개혁 이현숙 목사가 ‘3만 한국인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각각 기도했으며, 2대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는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의 의장인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내빈소개, 서기 박광철 목사의 회원 점령 후 의장 전기현 장로의 개회선언과 상임회장 김동욱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했다.

서기 박광철 목사의 환송체택과 전 회 의록 보고 후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가 지난 회기 사업보고 및 대표회장 활동을 영상을 통해 보고했으며, 감사보고와 회 계보고가 이어졌다.

총회에서는 황연규 선교사(아르헨티나 지회장), 조규보 선교사(케냐 지회장), 김태수 목사(미동북부 회장)에게 지난 10회 기 동안 세기총 협력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장금주 선교사(키르기스스탄 지회장), 이승재 선교사(싱가포르 지회장)에게는 지회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관개정위원회 위원장 황의춘 목사가



세기총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기총

발표한 정관개정 내용은 특별한 문제 없이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으며, 신임 대표회장에는 총회 대의원 만장일치로 전기현 대표회장의 연임을 결의했다.

미국 살롱장로교회 장로인 전기현 대표회장은 Chum Group, Inc.의 설립자, 사장 겸 CEO로서 공인회계사(CPA)로 오랫동안 미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왔으며 지난해 세기총 대표회장 취임 이후 전 세계를 돌며 세기총 사역과 함께 선교에 앞장서 오고 있다. 특히 자신의 사비를 털어 세기총 회관 건립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어 운영위원회 구성과 임원 인선,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를 마친 뒤, 산구임원 교체 후 7대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가 격려사를, 6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축사를 전

했으며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미기총) 대표회장 나성균 목사, 미동북부 회장 김태수 목사, 세기총 아프리카 회장 조규보 선교사, 세기총 라틴 아메리카 부회장 정득수 선교사가 각각 협력 기관 보고를 했다.

세기총회는 회의록 채택 후 멕시코 지회장 정득수 선교사가 제12회 총회선언문을 발표한 뒤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의 폐회선언과 공동회장 전희수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또 이번 정기총회 개회예배에 앞서 진행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현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무총장 연임을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했다. 총회 대의원들은 그동안 세기총을 위해 애써온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를 치하하는 한편 회관 마련 등 세기총을 위한 앞으로의 다양한 사역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세기총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이다.

세기총은 이날 채택한 총회선언문을 통해 “세기총은 해외에 거주하는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함께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적 과제에 집중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교회 일치와 연합, 교회의 순전한 기능 회복을 위해 최선



연임이 결정된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가 2대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에게서 취임장을 전달 받고 있다. ©세기총

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에 진행된 제12대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에선 공동회장 박광철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김태수 목사(미동북회장의 기도, 공동회장 이승재 목사의 성경봉독, 필리핀한인선교사합창단의 찬양과 지구촌선교회 위임선교단의 특별위임이 있었으며 5대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가 “Arise & Shine”(사 60: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상임회장 원종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취임식은 전기현 장로의 대표회장 취임 인사 후 2대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에게 취임패를 전달했다.

또 상임회장 김영복 목사가 취임 기도를 한 뒤 3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와 6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격려사를, 7대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와 나성균 목사(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축사를 전했다. 테너 황진호 안수집사, 필리핀한인선교사합창단, 지구촌선교회 위임선교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싱가포르 기도회

한편, 같은 날 오후 제43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싱가포르 기도회도 진행됐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도회에선 지구촌선교회 위임선교단의 오프닝 위임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한반도 자유-평화-통일기도회 영상이 상영됐으며 준비위원장 이승재 선교사(싱가포르 지회장)의 환영사,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대표회장)의 대화사, 공동회장 육민호 목사의 기도, 필리핀한인선교사합창단의 특별찬양에 이어 제9대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가 ‘브나엘의 아침’(창 32:30-3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공동회장 최순덕 목사의 기도로 헌금 시간이 있었으며 공동회장 김관중 목사의 인도로 특별기도가 진행됐다. 필리핀 지회장 임흥재 선교사가 ‘한반도 자유-평화-통일을 위해, 케냐 지회장 조규보 선교사가 세계 복음화와 한인교회를 위해, 볼리비아 지회장 정지현 선교사가 ‘북한동포들과 전쟁으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대만 김혜옥 선교사가 ‘3만 한인 선교사와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또 2대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 8대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격려사를, 싱가포르 교회 및 선교사협의회 회장 박민규 목사(싱가포르 순복음교회 담임)가 축사를 전했다.

이어 신임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가 준비위원장 이승재 목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통일의 노래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제창한 뒤 3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진영 기자

## 동성애자 목사안수 여부, UMC 지역총회별 결정 가능성 생겨

### 총회서 지역화 청원안 통과

연합감리교회(UMC) 총회에서 지역화 청원안이 통과돼, 각 지역총회(regional conference)가 동성애자 목사안수 여부 등 성소수자 역할에 대한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앞서 지난 23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총회를 개최한 UMC는 25일 총회 대의원 585명의 찬성과 164명의 반대로 교단 조직에 관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 개정안은 각 연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비준되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도 아프리카나 유럽, 필리핀과 같은 해외지역총회처럼 선교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단의 정책 서인 장점을 개정할 수 있는 동일한 권



연합감리교회(UMC)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UM News

한을 가진 지역적(Regional) 총회가 된다. 연합감리교뉴스(UM News)는 전했다. 현재는 해외지역총회만이 선교적 필요와 다양한 법적 상황에 따라 장점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다.

총회를 통과한 지역화 법안에 따라, 각 지역 총회(Regional Conference)는 △목사와 평신도 전문 사역자의 자격과 교육

요건 등 각 지역의 교회 구조와 관련된 법과 조항이 포함된 지역의 장정(regional Discipline) 제정·출판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예전(ritual of church) 제정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연합감리교뉴스는 “이 개정안이 비준되면, 각 지역 연회가 목사의 자격뿐 아니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지역의 상황과 법률에 따라 교회법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즉 동성애자가 목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의 대의원인 루실 그레이스(Lucille Grace)는 “지역총회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성에 관한 규정을 세울 수 있게 된다”며, 다른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진술 없이 자연에 대한 과학의 설명은 불충분”

### 윤철호 박사, 2024 한국조직신학회 월례포럼서 발제

윤철호 박사(미래신학연구소 대표, 장신대 명예교수)가 지난 29일 저녁 2024 한국조직신학회(회장 이찬석) 월례포럼에서 ‘기독교 자연신학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포럼은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됐다.

윤 박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적 본성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함축한다”며 “과학신학자인 존 폴킹혼도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개인이 하나님의 현존을 알

수 있는 내재적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의 특성은 하나님을 향한 개방성과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의 가능성 부여받았다는 사실에 있다”며 “이 가능성을 부여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 초월적 개방성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능력 자체가 인간이 은혜로 부여받은 자연적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계시)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은 구별될 수 있지만 대립될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칼 라너는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를 향해 열려있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초자연적 실존’이라고 불렀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수용성은 ‘인간의 중심적이고 영속적인 실존’이다. ‘초자연적 실존’에 있어서 자연은 은혜의 내적 계기이며 ‘전제’라며 “반드시 은혜에 의해 의롭게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오직 은혜를 수용하라는 부르심만 있는 질서, 즉 ‘초자연적 실존’ 안에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간의 본성과 은혜 사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자신을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기초한 일치가 있다.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 즉 계시를 향해 열려있는 것이 ‘초자연적 실존’로서의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라면 은혜와 자연, 계시신학과 자연신학은 대립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지금 이 순간도 LX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자원·에너지 LX인터내셔널    글로벌 스마트 물류 LX판토스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LX하우스    신소재 개발 LX MMA    차세대 반도체 LX세미콘    유리 솔루션 LX글라스

**LX**  
LINK FOR NEXT

# 정부-교계, 北 억류 선교사들 석방 위해 협력한다

##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제1차 회의 열려... 교단 총무 8명 참석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제1차 회의가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각 교단 총무로 참가한 김보현 목사(예장 통합 사무총장), 김순귀 목사(행복한교회, 예장 개혁), 김창주 목사(광복교회, 기성), 엄진용 목사(여의도 순복음교회, 기하성), 이영한 목사(서울성일교회, 예장 고신), 이용윤 목사(강서교회, 기감 행정기획실장), 정선영 목사(남은교회, 예장 합신, 이상 가나나 등) 등 8명이 참석했다.

먼저 인사말을 전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올해는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인 해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다"

고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반민족적반역사적-반통일적"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주장과 관계없이 한법 가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풍요롭게 사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가 실천하는 사랑과 연대의 중심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정례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기독교계가 서로 소통하면서 자유롭게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통일 인식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통일을 위한 기도, 사역, 봉사, 헌신들이 하나하나 모여 통일을 위한 큰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제1차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일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듯이 우리 한국에서도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통일에 대한 관

심과 협력이 통일 미래를 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북한에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억류되어 있다. 올해는 김국가최초급



김영호 통일부 장관(왼쪽)이 이용윤 목사(오른쪽)에게 배지를 수여했다. ©장요한 기자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해"라며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확고한 원칙과 책임감 아래, 억류된 분들의 건강과 생사 확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계에서도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비롯해 남북자-억류자-국교인 포로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원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7월 14일을 북한 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 탈북민에 대한 포용적 문화를 확산하고,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탈북민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 공간도 조성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지난 3월 초부터 새로운 통일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각계의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기독교 등 종교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헌법적 가치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통일 담론을 만들어 나가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교계를 대표해 엄진용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엄 목사는 정부와 교계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탈북민 지원에 힘쓰고 있음을 전했다. 한편, 다음으로 물망초 배지 패용식이 진행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용윤 목사에게 배지를 수여했다. 장요한 기자

## 강기총,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리셉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수형 목사, 이하 강기총)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리셉션을 지난 29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개최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기총 이수형 대표회장의 사회로 시작해, 김장환 목사(춘천순우리교회)가 기도했고, 조현호 테너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축하 특송을 불렀다.

이수형 대표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롭게 22대 국회 의정활동을 하실 의원들을 통해 강원도가 어떤 지역보다 활성화 되고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한반도의 중심이 될 줄 믿는다"며 "이를 위해 함

께 하시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위해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회장이 당선자를 소개하며 꽃다발을 전달했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축사를 전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 분들과 저하고 교육감님까지 이렇게 보니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라며 "정말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이 제헌의회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다"며 "이윤영 의원이자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첫 발을 뗄 때 강원도 목사님들의 기도로 시작하니 강원특별자치도가 잘 되어 나갈 것 같

다"고 전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생명이 가득한 4월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강기총은 우리 사회 곳곳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타인을 위한 위로와 봉사로 성숙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여러분이 교육의 중요성을 더 알아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며 "우리 교육청도 여러분과 늘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임하겠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이후 당선자들이 인사말을 전했고, 강기총 임원들이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송을 불렀다. 이후 양명환 직전대표회장의 축복기도로 마무리됐다. ▶관련기사5면 김진영 기자



(왼쪽부터) 양명환 직전 대표회장,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교육감, 이수형 대표회장. ©강기총

## 글로벌에듀, 공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찬

사단법인 글로벌에듀 이사장 소강석 목사를 비롯해 부이사장 전태식 목사, 상임이사 이현규 장로가 최근 국회의원 공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찬을 가졌다고 글로벌에듀가 29일 밝혔다.

먼저, 김진표 국회의장은 작년 10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아프리카 30여 개국 인사들을 초청해 '2023 한-아프리카 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준 소강석 이사장과 글로벌에듀 임원들께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이어 글로벌에듀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법인 명예이사장으로 위촉하기로 했으며, 오는 9월 12박 13일간(9.29-10.11)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9월에 진행되는 아프리카 사업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글로벌에듀 방문단이 작년에 건축한 르완다 카운자 초등학교와 키갈리 고등학교의 준공식을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로 콩



(왼쪽부터) 이종민 목사(새연교회), 소강석 이사장, 김진표 국회의장, 전태식 부이사장, 이현규 상임이사 ©글로벌에듀

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탄자니아에 초등학교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고.

지난주에는 글로벌에듀 법인이자인 김동문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순천북부교회와 탄자니아 이슬레 초등학교 건축을 위한 비용을 헌금해 이를 아프리카 현지

에 송금했다고 한다. 한편, 글로벌에듀는 오는 5월 12일부터 8일간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EDCF 사업 참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콩고민주공화국 장관과 주지사의 사업 비용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 여의도순복음교회, 어린이날 앞두고 교회학교 잔치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4월 어린이와 학부모 등 약 4,000명을 초청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마련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 베다니광장과 베다니홀, 십자가탑 주변과 부속 성전 등 캠퍼스 전역에서 이날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펼쳐지는 '2024년 교회학교의 날' 행사에는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체험존 포토존 등 다양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고 교회 측은 전했다.

특히 오전 11시에는 대성전에서 '온 가

족이 함께하는 예배가 열리며 이영훈 목사가 직접 참석해 어린이들을 축복할 예정이다'라고 한다. 교회 내 두 곳의 식당과 부속 성전에서 샌드위치 박스 4,300개로 점심식사를 하며, 베다니광장 등에 마련된 10여 대의 푸드트럭에서 간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래는 이날 행사의 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11:00~11:20, 대성전) 푸드트럭, 에어바운스, 포토존, 페이스 페인팅(11:20~16:00, 베다니광장과 십자가탑)

뮤지컬 '선물' 공연(12:50~14:00, 바울성전) 학부모 세미나(14:20~15:20, 예루살렘성전) 레일기차 운영(12:00~15:00, 어린이집 앞) CCM 콘서트(12:30~13:30, 요한성전) 농구대회와 탁구대회(11:20~16:00, 비전센터 7층 체육관) 캘리그래피, 무드등 만들기, 보석 십자수, 디폼블럭, 토브블럭, 페이퍼토이, 가족공예, 네일아트와 메이크업 등(11:20~16:00, 부속성전) 김진영 기자

당신을 변화시키는 움직임  
**The Kia EV**

구입문의 1588-1001 | 고객지원 080-200-2000 | www.kia.com

#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의 영향과 과제는?

피영민 총장·박용규 박사,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정기논문발표회서 발제

한국복음주의신학회(회장 임원택)가 27일 지구총교회(담임 최성은 목사) 분당 채플에서 '복음, 부흥, 민족'이라는 주제로 제82차 정기논문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피영민 총장(한국침신대)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돌되는 영역들' △박용규 박사(총신대 명예교수)가 '복음, 부흥, 민족: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피영민 총장은 "복음주의 안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사실적 측면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복음의 체험적인 측면에 관해서는 이해가 충돌되는 영역이 많은 것"이라며 "복음의 이해와 체험에 관한 충돌이 일어나는 영역은 많이 있지만, 주로 세 가지 영역에 국한된다"고 했다.

피 총장은 "먼저, 인간의 의지가 구원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문제"라며 "이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구별되는 요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세 집단과는 단절하였다. 첫째는 인문주의자들이었고, 둘째는 신령주의를 추구하는 급진 종교개혁자들이었고, 셋째는 농민전쟁을 주도하던 농민들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개신교 내부에서도

갈등요인이 되었다. 1609년부터 1618년 동안에 소위 '고전적 알미니안주의(Classical Arminianism)'라고 불리는 아르미니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인 항론파(Remonstrants)가 제시한 사상은 기존의 칼빈의 신학과는 다른 것이었다"며 "고전적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이 본성상 타락한 존재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선을 택할 수 없는 존재라는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사상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하나님은 우주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아무도 예외 없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도 있는 자유의지의 능력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고전적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사상인 소위 '선행적 은혜'라고 했다.

더불어 "고전적 알미니안주의는 선행적 은혜라는 개념을 가지면서 모든 인간은 예외없이 소위 '자유지상주의적인 자유(Libertarian Freedom)'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복음주의 신학은 과연 선행적 은혜가 성경적인 개념인가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속죄의 범위, 제한적인 것인가 일반적인 것인가' 그는 "둘째로, 속죄의 범위가 제한적인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82차 정기논문발표회 기념 사진. ©한국복음주의신학회

것이나 일반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라며 "속죄의 범위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선택론 혹은 예정론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는 것이다. 고전적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예외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선행적 은혜를 따라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할 사람을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셨다는 소위 '예정론'을 취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제한속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 편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속죄를 받고, 속죄받은 사실을 성경의 역사로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이런 예정을 '무조건적 예정' 혹은 '절대 예정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정론의 차

이는 또한 더 큰 주제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 ◆하나님의 '예지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피 총장은 "셋째로, 하나님의 '예지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라며 "고전적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택할지 불신앙을 택할지는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선택의 자유는 인간에게 달려있으나 하나님은 단지 누가 믿음을 택할지는 미리 아신다고 하였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논리적인 함정도 많은 이론이기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지예정론의 논리적 약점에 의문을 품고 약점을 파고든 신학이 소위 '열린 유신론'이다.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일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정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정확히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이라며 "열린 유신론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과정신학'으로 전개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Whitehead의 제자인 Hartshorne은 시카고대학을 중심으로 과정신학의 시카고학과를 형성했다"며 "과정신학자들은 대단히 동력적인 신앙을 제시하였다. 하나님과 세계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Hartshorne은 이런 사상은 '만유내재신론'이라 불렀다. 하나님은 가능한 한 최고도로 변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피조물의 행위에 의해서 유익도 얻으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하기도 하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섭리 등의 개념들은 열린 유신론에서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과정신학에 와서는 완전히 고전되었다"며 "열린 유신론은 그나마 고전적 알미니안주의의 범주에 머물러 그 논리적인 약점을 지적해 보려는 것이지만, 과정신학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과 같은 전통신학의 모든 개념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복음주의 신학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복음주의는 고전적 알미니안주의와 개혁주의를 모두 포함하는 사상"이라며 "고전적 알미니안주의는 복음주의가 용이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효과적인 신학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신학과 목회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찾는 양에게 올바른 꼴을 먹이는 측면도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전적 알미니안주의가 가진

복음의 이해에 대한 약점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조직신학은 종교철학으로 변하고, 열린 유신론과 과정신학으로 전개된다"며 "성경적인 복음의 제시, 그리고 좀 더 성경적인 복음의 교육을 위해서 계시자향적인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 ◆1960-1988년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

이어서 두 번째로 발제한 박용규 박사는 "1960년부터 1988년은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으로 특징되는 한국교회 제2의 부흥성장기였다"며 "이 일

어에서 두 번째로 발제한 박용규 박사는 "1960년부터 1988년은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으로 특징되는 한국교회 제2의 부흥성장기였다"며 "이 일어 많은 지도자들이 쓰임 받았지만 한정적, 김준곤, 발리 그레함, 빌 브라이튼은 분명 두드러진 지도자들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는 반공과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일련의 시대 속에서 당시 한국교회는 반공의 가치를 강하게 내걸고 체제안정을 도모하며 국가의 경제발전, 민주주의 발전, 세계화에 동참했다. 그 결과 짧은 기간에 한국은 이 셋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민족이 되었다"고 했다.

박 박사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놀라게 축복하셨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앞으로 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그러나 그것은 개인과 민족이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하나님

이 축복하신 역사는 없다. 한국기독교는 지금이라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역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할 때 참된 선지자들이 준 엄하게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사실을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1960-1988년으로 특징되는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룩했지만 동시에 부정적이고 비평적인 과제도 남겼다는 사실을 한국교회는 애써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특별히 1960-1988년으로 특징되는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이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이 기간 이후 한국교회의 급속한 침체와 사회와 민족으로부터의 처절한 외면이 이어졌다는 사실에서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지도자들은 더욱 더 냉정하게 역사를 돌아보고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이 한국만의 독자적인 현상이 아니라 분명 당시 전 세계에 강하게 일고 있던 세계복음주의운동과의 교류 속에 진행된 복음주의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이라며 "1973년 발리 그레함 한국전도대회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한국교회였다. 1959년 WCC 애크메넬칼운운동으로 이를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로 대별되어 참여하게 대립했던 한국교회가 세계복음주의운동과 세계복음주의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한국교회의 신앙적 체질이 복음주의 방향으로 점차 이동했다"고 했다.

이어 "1965년 전국복음화대회부터 1974년 발리 그레함 한국전도대회까지의 대중전도대회가 세계복음주의운동과의 긴밀한 호흡과 교류 속에 세계복음주의

운동의 흐름의 일환으로 진행된 데다 외국 초청 강사들이 모두 복음주의 지도자들이어서 전도대회 기간 동안 철저한 복음주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며 "당시 한국교회의 투철한 반공의식과 복음적 민족복음화 열망은 자연스럽게 본래의 한국선교사들이 참여한 자립 자전 자전의 정신을 강화시켜주었으며, 한국교회로 하여금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고, 성령의 인격적 체험에 의한 개인의 회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예상합동이나 고신교단을 비롯한 분리주의적 근본주의 성향이 강했던 교회들이 역사적 복음주의 신앙을 견지하면서도 건강한 연합운동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WCC 애크메넬칼운운동을 지지하던 한정적과 예상통합의 경우도 세계 애크메넬칼운운동과의 교류를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베를린선교회, 모산대회 등 복음주의 운동의 세계복음화대회에 참여하는 등 과거에 비해 상당히 복음주의 노선으로 움직여 나갔다. 그 결과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을 통해 성서적 복음주의 신앙이 한국교회 안에 널리 뿌리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 ◆"복음주의 책무 충실히 감당해야"

그는 "이런 현상은 예상합동이나 예상통합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에 참여한 한국교회 교인들이라면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며 "이것은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이 한국교회에 가져다 준 가장 값진 선물 중 하나였다. 그 결과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은 한국에 복음주의운동의 자원을 확대해주고 복음주의 해외선교운동의 봄이 일어나 세계선교를 앞당기는 선교대열에 한국교회가 선두에 설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대중전도운동은 복음의 정체성, 부흥의 성격, 기독교의 민족적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한국교회에 남겨주었다"며 "복음주의는 단순히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만 아니라 동시에 건강한 연합운동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복음주의교회들과 지도자들은 복음주의 책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학과 신앙, 신학교육과 목회현장이 괴리되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학교의 교수들이 복음주의 자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본래의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실천적으로 감당하며 교회를 위한 신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기도하며 경건을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신학교 강단에서 담담하게 외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신학교 강단이 말씀이 살아 있고 성경에서 역사하는 채플과 강의실이 될 때 그곳에서 살아 있는 복음주의 신학을 배울 것이고 그런 훈련을 받고 배출된 목회자들에게 의해 한국교회는 살아 있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요한 기자

##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짝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운 피부 나이

10.6%  
볼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증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 RETINOL 4X |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검색 | 전국 대리점 및 유통망 매장

##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 대학 26곳 중 11곳 기독교 대학

교육부 관계자 "정부 재정지원 받지 않은  
종교대학, 학생 충원 어려움"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개 교에서 등록금을 인소한 대학이 26개 교로 이 가운데 11곳이 기독교 계통의 사립종합대학이거나 신학대학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4학년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개 교 중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소한 대학은 26개 교(13.5%)로 집계됐다. 나머지 166개 교(86.5%)는 올해 등록금을 인하시거나 동결했다.

등록금을 인소한 대학 26개 교 가운데

11곳은 기독교 계통의 사립종합대학이거나 신학대학교로 감리교신학대(이하 가나다순), 나사렛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아신대, 영남신학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칼빈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종교대학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전부터 꾸준히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 이수형 목사, 강기총 제25대 신임 대표회장 취임

총회 후 이·취임예배... “강원도, 영적 부흥에 중요 위치”

강원특별자치도기독교총연합회(강기총) 제25대 대표회장으로 이수형 목사(순복음총천교회)가 취임했다.

이 신임 대표회장은 29일 춘천세종호텔에서 열린 이·취임예배에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별자치도 안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위치를 잘 자리 잡아 교회 위상이 높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가장 어려울 때 우리 18개 강원시군 기독교연합회가 협력해서 전국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중에서 좋은 모델을 제시했다”며 “강진대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우리 국회의원들이 함께 협력해 주셔서 좋은 모델이 되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인 줄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적 부흥이 원산에

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강원도가 다시 한 번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대 사회가 갈등구조로 치닫고 있지만 강원도가 연합해 좋은 모델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영향을 끼친다면 더 이상 갈등이 아닌 하나 되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부여하실 줄 믿는다”고 전했다.

이 대표회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저출산과 돌봄이라고 생각한다”며 “강원도 교회들이 육아부터 방과 후교실 등 돌봄에 중심이 된다면 저출산뿐 아니라 다음세대를 세워 가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줄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원특자치도 지역별연합회 모두가 대표이고 하나가 되어 복음통일의 중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와 주기적인 기도회, 강원 DMZ문화제 등을 통해 시군연합회와 화



이수형 강기총 신임 대표회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강기총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기총

합과 도민화합을 위해 겸손히 잘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배에선 유화종 사무총장의 사회로, 순복음총천교회 비전스쿨 V-CA가 축하공연을 했고, 류배형 목사가 기도를 했으며, 양명환 직전 대표회장이 이임사를 전했다.

양 전 대표회장은 “강진대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이 행사 때마다 잘 참석

해주셔서 힘이 되었다”며 “모든 분들이 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강진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사는 이임하는 양명환 전 대표회장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했다.

한편, 이·취임예배에 앞서 개회예배와 제25차 정기총회가 있었다. 우민중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개회예배에선 조기훈 목사가 기도했고, 윤수길 목사가 성경을

봉독했으며, 양명환 직전 대표회장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백창근 목사, 김영철 목사, 최남식 목사가 각각 대표로 기도했고, 이동민 목사가 헌금기도를 했다.

정기총회는 김태영 목사의 기도으로 시작해, 사기도 선출된 조성복 목사의 참석자 보고 후 개회했다. 회순채택은 임시보고로 받고, 전 회의록 낭독, 경과보고, 감사

보고, 결산보고, 회칙개정, 신규임원교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선출된 신임원은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 △상임회장 최현영 목사 △사무총장 유화종 목사 △사무차장 이상훈 목사 △상임총무 김학장동장 김수한 목사 △사기 조성복 목사 △회계 김병남 목사 △감사 한균-김미열 목사. 김진영 기자

## 제자훈련 세미나 마쳐... 11개 국 목회자 400여 명 참석

오정현 목사 “온전한 제자로 무장돼 시대 압도하길”

사랑의교회 국제제자훈련원(원장 오정현 목사, 이하 훈련원)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제122기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지도자 세미나’(이하 CAL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한국을 비롯해 45명의 우크라이나 특별 참가단을 포함한 유럽(우크라이나, 체코, 남아메리카(브라질), 아시아(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아프리카(가나, 에티오피아), 중화권(중국 본토, 대만)의 11개 국가에서 240여 교회 4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가했다. 훈련원은 외국 참가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우크라이나어의 3개 언어로 동시통역 시스템을 제공했다.

훈련원 측에 따르면 세미나 첫날 진행된 ‘온전론’ 강의에서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담임)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자훈련 교회(Disciple Making Church)가 온 세상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제자훈련 선교교회(Disciple Making Mission Church)로 변모해야 하

는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CAL세미나는 크게 네 가지 트랙으로 구성됐다. △제자훈련 목회의 철학과 전략 방법론을 다루는 ‘주제강의 트랙 △실제 목회현장에서 제자훈련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배우는 ‘소그룹 인도법 트랙 △사랑의교회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평신도 훈련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실습해보는 ‘현장참관 및 실습’ 트랙 △그리고 제자훈련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목회자들의 네트워크인 ‘CAL-NET’ 트랙이 그것이다.

훈련원은 “CAL세미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참가자들이 이론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장반과 제자반, 다락방 소그룹 등에 직접 참여해, 참관과 실습을 해 볼 수 있다는 점”이라며 “세미나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사랑의교회 제자반, 순장반, 참관실습 다락방 등을 통해 성령과 함께하는 생명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세미나에선 ‘CAL-NET’(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의 지역별 모임도 이뤄졌다.

세미나 참가자들이 각 지역 제자훈련 네트워크의 대표와 총무를 만나, 제자훈련에 필요한 조인과 노후유를 전달받는 시간이라고 한다.

훈련원장 오정현 목사는 “제122기 CAL세미나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가 되어 충성되게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석한 모든 사역자들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무장되어 시대를 압도하는 21세기의 대장장이로 쓰임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가자인 장세호 목사(낙원제일교회)는 “제자훈련을 고급화된 성경공부로 오해했었음을 알았고, 이제 귀납적 설교와 귀납적 성경공부를 통해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트랜스포메이션 교회를 섬기는 삐뜨로 마르체코 목사는 “전쟁 중에도 우리는 제자훈련을 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전쟁이 우리의 사명과 사명을 방해할 수 없다. 전쟁과는 별개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면 바로 제자훈련과 양육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마감되고 전쟁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교회로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 기수까지 CAL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는 국내세미나 22,169명, 해외세미나 4,979명(미주, 일본, 브라질, 대만)을 합해 모두 27,148명이다.

사랑의교회 국제제자훈련원이 지역교회에 제자훈련을 소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지난 1986년 시작한 CAL세미나는

1999년 결성된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CAL-NET)를 통해 제자훈련을 확산하고 있다.

훈련원은 “세미나를 통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목회자들은 각 지역과 나라에서 각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제자훈련 2.0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제122기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11개 국 240여 교회 4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담임이자 국제제자훈련원 원장인 오정현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 집회 참석자 명단제출 거부한 인터콥 간사 기소유에 취소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집회에서 참석자와 시설 관계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에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현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콥선교회 간사 A씨가 검찰의 기소유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인터콥선교회는 지난 2020년 11월 27-28일 경상북도 상주시 B1열방센터에서 집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한 참석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상주시 역학조사 담당자는 센터 관계자에 해당 기간동안 센터 출입자 명

단과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제차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B1열방센터 간사 A씨는 선교사들과 상의한 후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듬해인 2021년 6월 역학조사를 거부한 혐의, 출입자 일부를 누락하거나 실제 출입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담은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A씨에 기소유에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진권 침해 이유로 기소유에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노형구 기자

현재는 감염병예방방법상 역학조사가 접촉자나 접촉 의심자가 아닌 확진자의 인적 사항에만 해당하는데도, 상주시의 역학조사는 확진자가 아닌 집회 참석자 전체의 인적 사항을 요구했다면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A씨에 기소유에 처분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현재는 또 “역학조사는 설문-면접조사 등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명단 제출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명단을 (인터콥) 기관 직원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인 A씨에게 진위를 확인할 권한이 없어 내용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결제에서 라이프까지

#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준법감시인심의회 제240402-01381-ADP (2024.4.2-2025.4.1)

KB 국민카드

# 김한요 목사 “팬데믹 후 빠져나간 3040... 맞춤 사역 필요”

‘3040세대’ 주제 「월간목회」 5월호에서 밝혀 아래 위 잇는 연결 세대이자 신앙 허리 세대 그들의 열정·경험 존중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이해해야 움직이는? 느껴야 움직이는 세대! 본질 추구에 따라오나 벗어나면 차갑게 식어

김한요 목사(아바인 베델교회)가 “팬데믹 이후 교회에는 3040세대가 밀물 빠지듯 빠져나간 텅 빈 공간이 생겼다”며 “떠나는 3040세대의 특징 및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맞춤 사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3040세대를 주제로 한 「월간목회」 5월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월간목회」는 이번 호에서 “3040세대 목회 현장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과 방향을 점검”하는 특집을 실었고, 김 목사 등 목회자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강화구 목사(제일영도교회)는 “3040세대가 ‘인 세대’이거나 교회의 ‘약한 고리’가 아니어야 한다는 인식 가운데 ‘청년

교구”를 신설했다. 3040세대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과 지원을 다하는 것”이라며 “그들을 향한 교회의 지속적인 변화에 2023년까지 연령별 교인 통계에서 최소 인원 연령 그룹이던 3040세대가 2024년에는 최대 인원 그룹에 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이제 3040세대는 제일영도교회에서 아래와 위 두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 세대이자 신앙의 허리 세대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라고 했다. 국명호 목사(여의도침례교회)는 “여의도침례교회는 3040세대를 ‘젊은 부부’ 교구로 부르는데, 신혼부부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까지 머무



베델교회 김한요 목사

는 공동체”라며 “결혼과 육아 등의 비슷한 삶의 주기를 경험하는 3040세대 성도들을 부부 양육리로 구성함으로써 공감과 도전, 공동육아를 이뤄간다”고 했다. 국 목사는 “머무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젊은 부부’ 교구에서 일반 교구로의 이동도 양육리 단위로 이뤄지며, ‘젊은 부부’ 교구만의 새가족반을 단독으로 운영해 교회 정착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수 목사(온사랑의교회)는 “온사랑의교회는 특정 세대 중심의 사역을 펼칠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 그러나 전체 교인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3040세대를 교회 모든 사역에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3040세대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특징과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었다”며 “장년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3040세대의 요소가 반영된 사역들로 ‘리딩저스 성경통독’,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온유스쿨’, ‘이카페 다락방’ 등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오태규 목사(더은혜교회)는 “목회자는 3040세대가 가진 열정과 경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그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교제를 해야 한다”며 “여전히 배움을 열망하나 스스로 성장하지 않는 3040세대를 위해 교회학교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시간과 열정,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3040세대가 지닌 저력이 발휘되기 위해 제도의 변화도 요구된다”며 “불

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새로운 관점과 연령별 구분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돈하 목사(오레곤베델장로교회)는 “전형적인 역삼각형의 이민교회였던 오레곤베델장로교회가 3040세대의 비율이 전체 교인의 50%를 넘는 교회로 전환되었다”라며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아닌 ‘원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3040세대는 이해해야 움직이는 세대”라며 “어떤 프로그램이든 불변하는 성경의 가치 위에 새로운 세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주파수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어떤 작은 시도라도 교회의 미래에 대한 가장 아깝지 않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종필 목사(세상의빛교회)는 “코로나 19를 지나며 3040세대의 일탈을 마주하고 보니, 그들은 이미 언제든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해결책은 복음밖에 없다”고 했다. 이 목사는 “그러므로 세상의빛교회는 3040세대로 하여금 복음을 알고, 경험하도록 이끌어 간다”며 “예배는 물론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과 ‘하나님 나라 성경관통의 양육 과정’을 통해 그들을 복음으로 설득하고 그 복음이 문화가 되어 삶으로 살아내도록 돕는다”고 했다. 정진명 목사(주마음교회)는 “개혁한 지 4년이 지난 주마음교회는 교회 내 3040세대가 성인의 46.3%를 차지한다. 그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기에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한다”며 “말씀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3040세대 성도들이 내놓은 답”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본질이다. 본질을 추구하면 가까이 따라오지만, 이어서 벗어나면 차갑게 식어버리는 세대”라며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도의 교제와 연합, 신앙적 삶의 지혜를 배운다는 3040세대의 고백 속에 교회의 방향을 찾는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교회 음악과 예배에 선한 영향력 주길”

윤임상 교수, 목사 임직 헌신예배 드려



윤임상 교수와 함께 한 라크마 챔버싱어즈 ©학교 측 제공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목사) 음악과 윤임상 교수가 최근 목사 안수를 받은 가운데 목사 임직 헌신예배를 28일 오후 4시에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에서 드렸다. 설교를 한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 전임 총장)는 “무슨 일을 하든지 윤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흐뭇하게 미소를 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영상 축사에서 임성진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회 음악과 예배에 대해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영상 권면에서 노진준 목사(PCM 공동대표)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첫째로 겸손한 목사가 되어야 하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겸손한 목사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높이는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윤 목

사님을 부른 것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일로 부르셨음을 믿는다”고 했다. 이어 권면에서 남종성 목사(월드미션대 신약학 교수)는 “윤 목사님과 같은 해에 미국에 건너와서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삼행시를 지어봤다. 윤기가 흐르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임시 사는 이 세상에서, 상’처와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의 희망의 사도가 되소서”라고 했다. 담사에서 윤임상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2020년 가을학기부터 학교에서 채플 사역을 하며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디자인하고 인도하며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두번째는 교회 음악과 관련

해 신문에 글을 쓰면서 오늘날 교회 예배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라며 “사도가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했던 것처럼 십자가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활발한 연주를 통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 것이고, 함께 하는 연주자들을 기르고 그들이 바른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목회자의 직분을 귀하게 받겠다”고 했다. 이날 고광선 목사가 사회를, 김영남 장로(한길교회 당회 서기)가 대표기도를, 라크마 챔버싱어즈가 특송을, 오우영 목사가 헌신의 찬양을, 윤임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토마스 멩 기자

## 한인포럼 ‘더 파인더’ 제12회 포럼 개최, 미셸 강 후보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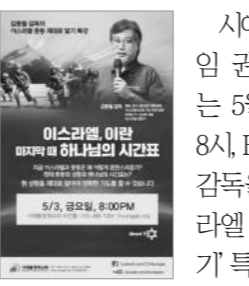
애틀랜타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한인포럼 ‘더 파인더(The Finder)’가 지난 28일 들루스 소재 한 식당에서 제12회 포럼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명동 박사가 ‘기본적인 생각, 선거, 정책 및 이슈, 인구변화, 투표 패턴 변화, 경제, 바이든 vs 트럼프, 종합 정리’ 등의 주제로 나서 미국의 선거년을 맞아 예상되는 변화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각도로 탐구했다. 이와 더불어 조지아 제99지역구 주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미셸 강 후보(사진)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기금 모금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샘 박 주하원의원, 존 박 브룩헤이븐 시장, 브렌다 로페즈 귀넷 카운티 민주당 의장, 레이 하빈스 귀넷 민주당 아프리카 아메리칸 코커스 의장, 브라이언 린 중국인협회 조지아 회장을 비롯해 박하실 보훈대표, 조지아 한인부동산협회 이사장, 김현경 전 애틀랜타한국학교 교장, 권영일 민주당평화

통일위원회의 상임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미셸 강 후보는 한인 사회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스톤 비즈니스 육성, 경제 활성화, 주택 및 교통 문제 해결, 지역 안전 강화, 여성의 선택 권리 회복, 교육을 통한 포용성과 다양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기적인 자원봉사자 회의를 통해 활동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인종과 출신 국가, 언어에 상관없이 지역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홍은혜 기자

## 시애틀형제교회, 김종철 감독 초청 ‘이스라엘-중동 제대로 알기’ 특강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는 오는 5월 3일(금) 오후 8시, Brad TV 김종철 감독을 초청해 ‘이스라엘 중동 제대로 알기’ 특강을 갖는다.

영화 ‘회복’과 ‘용서’, ‘제3성전’으로 널리 알려진 김종철 감독은 이스라엘을 80회 이상 방문 취재한 경험과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과거와 현재 파악하고 이해를 돕는 시간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문의: 425-488-1004 김민선 기자

## 부고 대신교단 남가주노회 소속 김순동(엘리아) 선교사 소천

대신교단 남가주노회 소속 김순동(엘리아) 선교사가 24일(수) 오후 9시 50분 소천했다. 천국 환송예배는 류당열 목사 집례로 5월 31일(금) 낮 12시, 한국 장의사(와신통과 하바드)에서 열린다. 문의: (213) 595-1947 김민선 기자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필 제24-08호(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저축보안연차) 노란우산은 예금저축보안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액 지급에 필요한 차관보증을 위해 매 결산마다 내부공제를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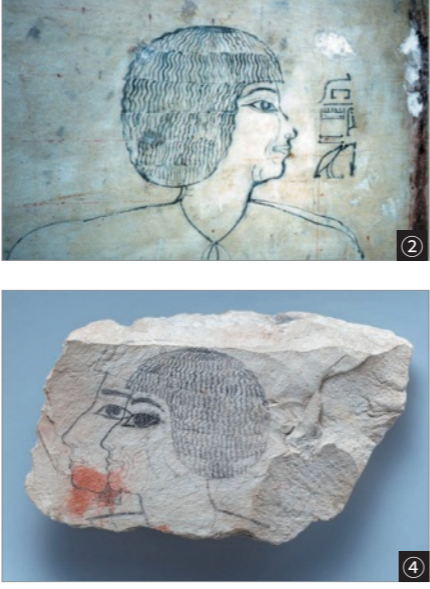
# 애굽 왕자 세넬무트(Senenmut)는 모세이다 IV

성경이 전하는 모세의 일생과 전기(傳記)를 들여다보면 그의 생애에 두 번의 커다란 전환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의 커다란 전환점은 그 주기가 정확하게 40년이다. 두 번의 터닝포인트를 지날 때마다 모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모세의 삶은 그리스도 삶의 모형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와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였다.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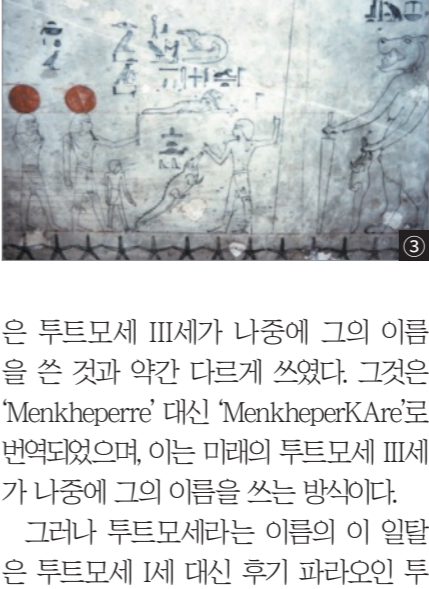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투탕카멘의 죽음』(Mary Neil Wyatt, 리진만 역)에서 발췌한 아랫글에서 독자들은 40년 주기로 전혀 다른 모습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에 그리스도 삶의 전조(前兆)가 된 모세의 삶에 대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출애굽 진실에 관한 저자의 30여 년간의 끈질긴 탐구 결과물로, 지난해 12월, 발간 1개월 만에 2쇄를 발간할 만큼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익히 영어 원서 『Battle for the Firstborn』은 '미국 아마존 화제의 도서'로 영어권 크리스천 독자들에게도 호평을 받아왔다. <편집자 주>



① 투트모세 1세의 초기 오벨리스크가 왼쪽에 있다. 높이가 높은 오벨리스크는 그의 세드 축제에서 명예를 위해 햇셉수트가 세운 석조 구조물 한 쌍 중 하나이다. ②공사는 완공 중간에 묘지에서 멈췄다. 점점 잉크로 된 부분은 바위에 새겨지지 않았다. ③세넬무트의 묘지에 있는 천문 천장의 일부 ©Mary Nell Lee ④그의 초기 묘지 71에서 세넬무트의 스케치가 있는 조각. 그의 독특한 코 모양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가가 그를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의 히브리 인종의 특징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기를 분명히 원했다. ©Metropolitan Museum of Art



②공사는 완공 중간에 묘지에서 멈췄다. 점점 잉크로 된 부분은 바위에 새겨지지 않았다. ③세넬무트의 묘지에 있는 천문 천장의 일부 ©Mary Nell Lee ④그의 초기 묘지 71에서 세넬무트의 스케치가 있는 조각. 그의 독특한 코 모양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가가 그를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의 히브리 인종의 특징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기를 분명히 원했다. ©Metropolitan Museum of Art



③세넬무트의 묘지에 있는 천문 천장의 일부 ©Mary Nell Lee ④그의 초기 묘지 71에서 세넬무트의 스케치가 있는 조각. 그의 독특한 코 모양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가가 그를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의 히브리 인종의 특징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기를 분명히 원했다. ©Metropolitan Museum of Art

세넬무트는 투트모세 1세의 오벨리스크를 만들었다. 세넬무트는 왕좌를 대신하여 주요 프로젝트를 많이 담당했다. 그는 햇셉수트의 묘지 사원인 제세르 제세루의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주요 프로젝트는 다가오는 투트모세 1세의 희년(稀年)을 위한 오벨리스크와 관련이 있다. 오벨리스크는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가늘어지는 수직 기둥이 있는 매머드 크기의 4면 좁은 석조 구조물이다. 측면의 비문은 때때로 그들의 꼭대기 파라미드가 은과 금의 조합인 금 또는 은으로 덮여 있음을 나타낸다.

이집트에는 현재 6개의 오벨리스크가 남아 있고, 약 22개는 침략자들로부터 선물이나 약탈품으로 운반되어 다른 나라에 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큰 것은 제18왕조 때 만들어졌다.

진정한 오벨리스크에 대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사원 입구나 안뜰에 두었다. 투트모세 1세는 그의 통치 초기에 2개를 세웠다.

투트모세 1세가 만든 이 초기 오벨리스크 중 하나는 높이가 약 64피트(약 20m)이고, 무게는 143톤으로 추정된다. 비문에는 그의 칭호가 언급되어 있으며, 그가 문자 그대로의 아버지가 아니라 신을 의미하는 그의 아버지 아몬에 대한 기념비로 만들었다고 한다.

투트모세 1세의 15년에 첫 번째 것보다 더 멋진 또 다른 한 쌍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다. 투트모세의 고위 관리인 이네니(Ineni)는 이 두 번째 오벨리스크 세트에 관해 썼다. 그의 묘지벽에 있는 그의 전기에서, 그는 이 오벨리스크를 인용했다. "나는 두 개의 오벨리스크가 세워진

것을 조사했다. 이 오벨리스크를 운반하기 위해 길이 120규빗(약 54m), 너비 40규빗(약 18m)의 8월베를 건조했다. (그들은) 평화, 안전, 번영 속에서 왔고, 모든 상쾌한 나무들이 깔린 카르나크에 상륙했다." 이네니가 이 오벨리스크의 검사와 운송을 담당했다면 세넬무트는 실제 채석, 제작, 각인 및 화수를 담당했다. 이것들은 햇셉수트 아버지의 세드 축제(Sed Festival)를 위해 세워질 두 개의 오벨리스크였다.

투트모세 1세 초기 오벨리스크 중 하나만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철탑 사이의 카르나크에 있는 법원에 남아 있지만, 이후 기 쌍의 나머지 하나는 크기와 무게 면에서 그것을 능가한다. 높이는 94피트(약 29m)이고, 무게는 323톤으로 추정된다!

아스완의 바위에 새겨진 다음 비문은 세넬무트가 두 개의 오벨리스크를 확보하는 작업에 관여했음을 알려준다.

"왕실 인장 착용자, 동반자, 사람이 큰 사람, 최고 청지기 세넬무트에 의해 전체 두 땅의 신성한 배우자 주권자에게 명예를 부여합니다. 그의 명령으로 두 땅의 여주인을 기쁘게 하는 신성한 배우자의 마음을 대단히 만족시키는 세습 왕자, 백자, 공주 네페투레와 함께 살고 있는 수석 청지기 세넬무트가 두 개의 거대한 오벨리스크 작업을 수년간 수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은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일은 폐하의 명성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 암각화에서 햇셉수트가 네페투레로 언급된다는 것은 흥미롭다. 곧 '네페투레'라는 이름이 더 이상 비문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두 이름을 모두 사용했음을 증명한다. 이것이 투트모세 1세의 즉위 30년 후

년, 또는 세드 축제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오벨리스크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그녀의 폐하는 이 신의 위엄에 의해 남쪽과 북쪽의 왕인 아케페르카라(투트모세 1세)를 찬양 하면서 이 기념비에 그녀 아버지의 이름을 영구적으로 새겼습니다." 『Cleopatra's Needles and Other Egypt Obelisks』, by E. A. Wallis Budge, p.103

다른 한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그녀가 세드 축제 첫날 그를 위해 만든(바친)..." 높이가 높은 오벨리스크는 그의 세드 축제를 위해 햇셉수트가 그의 명예를 위해 세운 한 쌍 중 하나이다.

위 세넬무트의 비문에 있는 '무수한 세월'과 '정해진 축제'라는 문구는 세넬무트가 투트모세 1세의 세드 축제에 가져오기 위해 보낸 오벨리스크의 정체를 확인시켜 준다. 작업은 투트모세 1세 15년(아멘호테프 1세로 그의 통치 27년)에 시작되어 3년 동안 채석하고, 모양을 만들고, 새기고, 테베로 가져오고, 마침내 세드 축제에 맞춰 세워졌다. 오벨리스크는 햇셉수트의 아버지인 투트모세 1세의 세드 축제보다 2년 앞서 완성되어 인도되고 세워졌다.

세드 축제는 왕위에 오른 지 30년이 된 파라오를 위한 축제였다. 고대 이집트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파라오의 힘을 회복하고, 그가 여전히 건강하고 통치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축제였다.

파라오가 30년 이상 계속 통치하면 이 축제는 3년 간격으로 열렸다. 그러나 학

자들은 오벨리스크에 언급된 이 세드 축제(The Heb-Sed Festival이라고도 함)를 실제로는 햇셉수트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 축제는 파라오와 백성에게 매우 중요했다. 중대한 오해가 한 왕조의 역사 전체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것은 주어진 정규 연도가 파라오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는 또 다른 예이다. 그 당시에는 누가 황제 파라오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라의 왕 투트모세 1세가 여러 경우에 햇셉수트의 영안실에 그려져 있다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믿음은 햇셉수트의 '통치 초기'와 관련하여 실제로 논리에 맞지 않는다. 아몬에게 제공되는 투트모세 1세로 식별할 수 있다. 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호루스의 왕좌에서 수백만 개의 세드 축제를 축하하고 레(Re) 신처럼 영원히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인도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것은 투트모세 1세의 세드 축제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다.

**다시 잘못된 투트모세 해석에 관해**  
햇셉수트의 탄생 장면과 대관식이 벽에 걸려 있는 열주(例柱, 柱)는 투트모세 1세가 아몬에게 인기는 장면으로 열주의 일부 기둥이 장식되어 있다.

나는 다시 역사가들이 이것을 투트모세 III세로 추정했음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이름

의 부모도 거기에 눈에 띄게 묘사되어 있으며 발굴자들이 모세 부모의 묘지를 발견했을 때 기억했던 묘지였다.

그 묘지로 내려가서 모세가 도망쳐 미라의 왕좌에 대한 주장을 포기했을 때 어떻게 이 묘지에서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지 보는 것은 매우 섬뜩하다. 그것은 상황문자와 그림의 아랫부분까지 완성되어, 일꾼들이 작업을 멈춘 곳에서 그림은 검은 먹으로 벽에 그려진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고인이 아내와 가족과 함께 묘사된 다른 이집트 묘지와 달리 모세가 이집트에서 결혼한 적이 없기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하트노페와 라모스만 보인다는 사실이다.

묘지벽에서 발견된 세넬무트의 초상화는 그의 첫 번째 묘지 71 아래의 바위 조각에서 발견된 스케치와 유사하다. 이것은 이전의 것과 큰 차이는 없지만, 그는 이때 27살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해 보인다.

세넬무트의 묘지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초기의 천문학적 천장이 있다. 커다란 도형의 정확성으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이 하늘의 날짜를 BC 1436년 또는 BC 1534년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완공된 지 많은 세월이 흘러 정확한 연대를 밝힐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론**  
세넬무트를 위해 지어진 묘지 안에서 그의 가족이 드러나며 이는 성경 기록과 완전히 일치한다. 세넬무트는 하트노페(성경에 나오는 요게벳, Jochebed)와 라모스(성경에 나오는 아르람, Amram)의 아들인 모세이다.

그의 형제는 아메넬하트(Amenemhat, 성경에 나오는 아론, Aaron)이고, 그의 누이는 아호텝(Ahhotep, 성경에 나오는 미리암, Miriam)이다. 아메넬하트는 A방에 세넬무트와 햇셉수트가 함께 그의 묘지 353에 그려졌다.

세넬무트의 다른 형제자매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의 묘지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는 그에게 다른 형제자매가 있었다면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끝>

※이 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투탕카멘의 죽음』에서 발췌해 소개합니다.

글: 메리 넬 와이엇(Mary Nell Wyatt)  
번역: 리진만 선교사(사신)



Energy Up, Tomorrow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로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드립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I400**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확대**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 美 워싱턴 DC서 '순교자 위한 행진'... "어떤 대가에도 예수 따르자"

종교자유 운동가들이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신앙 때문에 박해나 죽음에 직면한 국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로부터 배우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를 따르려는 의지를 키우자고 격려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순교자들을 위한 행진'(March for the Martyrs) 네 번째 행사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수십 여명이 내셔널몰에 모인 이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곤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열렸다. 종교자유 운동가들의 예배 음악과 연설이 포함된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거리를 행진하여 성경 박물관을 향해 행진했다.

'순교자들을 위하여'(For the Martyrs) 창립자인 지아 차콘(Gia Chacón)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 C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교단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이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복음주의자나 침례교 인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행사이며, 그것이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 박해는 인권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도로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인권을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 놓고 미국 정부에 조치를 요구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순교자들을 위한 행진의 영적 요소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인권을 옹호할 때 그것은 매우 강력하다"라고 했다.

차콘은 '순교자를 위한 행진'이 "종교

자유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동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보호를 옹호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대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그녀는 기독교인들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적대적인 분위기에 대해 "중동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매일 고통을 받고 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은 흔한 일이지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차콘은 "2020년 첫 순교자 행진이 열린 이후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1억 명 늘었다"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3억 6천 5백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했다.

연설 중 차콘은 기독교 박해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집트 기독교인들과 나눈 대화를 회상했다.

그녀는 "여기 미국에는 그러한 증인이 필요하다"라며 "목숨을 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다른 연사들은 미국 기독교인들이 더 강한 기독교 증언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차콘의 요청에 공감했다. 필로스 프로젝트 교육 책임자인 시몬 리즈칼라(Simone Rizkallah)는 이슬람국가(IS) 테러단체의 공격 하에 있는 이라크, 시리아 및 기타 국가의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동방 가톨릭 종교 지도자의 답변을 인용했다. 당시 가톨릭 지도자는 "행복하라"고 대답했다.

리즈칼라는 "그가 '행복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많이 구원하고, 기독교인의 기쁨을 너무나 많이 구

현하고 반영하고 증언하여 동방에서 우리의 희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미국 기독교인에게는 그런 종류의 열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언 전반에 걸쳐 암시했다.

리즈칼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는 미국이다. 그 이유는 의로움으로 인한 가난 때문"이라며 마더 테레사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마더 테레사가 발견한 의로움은 미국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뿌리를 잊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아르메니아인 학살 속에서 이집트로 탈출한 아르메니아인의 손녀였던 리즈칼라는 태어나기 전 부모님이 미국으로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나라가 제공하는 경제적 번영과 종교 자유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미국인이 되면서 영적

으로 무엇인가 상실했다"고 한탄했다.

리즈칼라는 재학했던 가톨릭 고등학교의 동급생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에 역겨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는 "드디어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마침내 자유로워지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이 흥미롭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연사이자 기독교인이자 언론인인 크리스티안 트리미노(Christian Trimino)는 2016년 쿠바 독재 정권을 방문하면서 인생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했다.

트리미노는 미국인들이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 세계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로부터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기자

## 英 복음주의의 전도자, 동성커플 축복 반대하며 성공회 떠나

영국 성공회의 한 성직자가 동성커플에게 축복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 교회를 떠났다.

기독교 탐구 과정을 공동 창설한 전도자 리코 타이스(Rico Tice)는 '에반젤리컬 나우와'의 인터뷰에서 사랑과 신앙의 기도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우려에 대해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로부터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한 후 교단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주교에게 성경의 가치에 반대되는 문화적 가치의 영향력에 저항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다른 교파의 정통 신자들과 함께 일하는 우리의 능력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로부터 실질적인 반응은 없었고 그것이 내가 떠나기로 결정한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리코 타이스.

타이스는 선도적인 복음주의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 그는 고인이 된 전도자 존 스토틀 목사의 교회인 런던 램햄 플레이스에 소재한 '올 소울즈 교회'(All Souls Church)에서 부목사로 수년을 보냈다. 그는 현재 일리에 있는 국제 장로교회(IPC)

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는 영국 성공회에서 계속 설교할 수 있는 설교권 허가를 받았지만 "특히 회개 설교와 관련하여 더 이상 성경적 정통성을 확증하지 않는 교회로부터의 분명한 분리를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

했다.

영국 성공회에 다시 합류할 수 있는지는 질문은 질문에 그는 "현재의 방향을 유지하는 한 돌아올 생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나는 결코 떠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성공회 신자라고 생각하고 세계 성공회의 남반구 모델에 깊이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영국 성공회가 성공회를 떠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 현재 상황은 정말 가슴 아프다. 돌아와보면 나는 영국 성공회의 현재 문화에 대해 순진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그토록 명백하고 광범위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 이스라엘, 'ICC, 이스라엘 고위 지도자들에 체포영장 발부' 우려

ICC 관할권 불인정에도 영장발부시 이스라엘 관리들, 제3국서 체포 위험 세계 곳곳서 친팔레스타인 시위 확산 속 이스라엘 비난도 더 거세질 것

이스라엘 관리들은 29일 하마스와의 가자지구전쟁에 대한 국제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여성 6명과 생후 불과 5일 된 아이를 포함해 5명의 어린이 등 최소 22명이 사망했다.

ICC는 3년 전 이스라엘이 201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당시 전쟁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체포 영장 발부가 임박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28일 오후(현지시각) 늦게 이스라엘 공관에 고위 정치 및 군 관계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무미'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무엇이 이스라엘의 우려를 촉발시켰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은 "법원이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실제로 영장이 발부되면 하마스와의 무장단체들의 사기를 북돋을 것"이

라고 우려했다.

이스라엘이 최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더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ICC의 영장 발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27일 "이스라엘의 고유한 자위권을 훼손하려는 ICC의 어떠한 시도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유일의 유대인 국가의 군인과 관리들을 붙잡겠다는 위협은 터무니없다. 우리는 그것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X에 밝혔었다.

이스라엘은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스라엘 관리들이 다른 나라에서 체포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미국 등 각국 대학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영장이 발부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 더 거세질 수 있다.

ICC와는 별도로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대량 학살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ICJ나 ICC 모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세진 기자

## 바이든, 이집트 엘시시와 통화...가자지구 휴전 회담 논의

미국과 이집트 정상이 전화 통화를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회담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예루살렘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전화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가자 지구 휴전에 관한 최근 협상 진전 상황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또 가자 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휴전 위협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이집트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와 관련 중동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

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하마스가 인질 석방 대가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세를 중단하는 제안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금 이 순간 가자 지구와 휴전 사이에서 있는 것은 하마스 뿐"이라며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나는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이집트를 통해 새 제안을 전달받은 하마스는 29일 협상 대표단을 이집트 카이로에 파견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에도 대표단 파견을 요청하면서 양측의 담판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성근 기자

인천환경공단  
ENVIRONMENTAL CORPORATION OF INCHON

# 환경도 도시활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안전 지키GO!**  
전국 첫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자원 다시쓰GO!**  
공기업 선도 공단  
폐기를 자원순환 100% 달성

**기후변화 맞서GO!**  
2030 온실가스 83% 감축,  
기후변화 선제 대응

**서비스 올리GO!**  
환경교육 인프라 및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해외송금도

자산관리도

월금통장도

# 하나 뿐인 내 편



하나은행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5년 0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광고-02911호(2024.04.15)  
/ CC브랜드 240411-0134

# 윤-이 회동 ‘빈손’에 5월 국회 먹구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입국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민주당은 회담 결렬을 계기로 대외 공세를 이어가며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중심의 처리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5월 국회가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5월 국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본회의를 반드시 열게 만들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쟁점법안 처리 요구를 “의회 독재”라며 일축했다. 내부에서는 본회의 표결 불참이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카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까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여야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5월 국회 재협의를 위한 후속 회동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최소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과 함께 이태원 전사 특별법 제표결까지 강행할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논의 외에는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여야가 민생과 정국 현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워 22대 국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회도 여야애대 국면의 대치 심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소리 기자

# 이번 주 ‘민정수석실’ 신설 현장 민심 청취할 듯

강남일·박찬호 전 검사 등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중으로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410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조직 개편을 구상해왔으며, 민정수석실 신설을 통해 현장의 민심을 제대로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정수석을 되살려야 할 것 같다”며 민심 청취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보가 부족

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책 조정과 공직기강, 정보 통합 역할을 하는 수석급 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새 민정수석실에는 현재의 법률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이 통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 조직명은 ‘법률수석’, ‘민심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민정수석’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정수석 후보로는 윤 대통령 시절 대검 차장을 지낸 강남일 변호사,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 등 검사 출신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더 이상 공직을 갈 생각이 없다”며 사실상 민정수석 기용 가능성을 부인한 바 있다. 박용국 기자

# 1분기 탈북민 입국 43명... 여성이 대부분 차지

제3국 체류 중 탈북한 탈북민 주로 입국

올해 1분기(1~3월) 한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탈북민) 수는 총 43명으로 집계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여성이 3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남성은 8명에 그쳤다.

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57명) 대비 입국 인원이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1분기

(34명)보다는 증가한 수준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분기별로 일정 수준 편차가 있고 입국 추이는 변수가 많아 전체적인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에서 바로 탈북해 남한에 입국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자는 “대부

분 제3국에 체류하다가 탈북한 뒤 입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고위층 탈북민 등 특이동향에 대해서는 “숫자와 기간을 고려할 때 신변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3~2011년 연간 탈북민 입국 인원은 2000~3000명 수준이었으나 2012년 이후 연평균 1300명대로 줄어들었다. 2019

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경 봉쇄 조치로 2020년과 2022년 입국자 수는 각각 63명, 67명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 196명으로 다소 늘어났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199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누적 탈북민 입국 인원은 3만4121명이며, 이 중 남성 9550명, 여성 2만4571명으로 집계됐다. 박용국 기자

# 日남북자 가족들, 미국 방문해 ‘피해자 조기 귀환’ 지원 요청

일본의 북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미국을 방문해 피해자들의 조기 귀환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30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남북 피해자가족회 대표 요코타 다쿠야와 이즈카 고이치로 등 가족들이 전날 미국으로 출발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들과 면담하고 다음 달

4일 귀국할 예정이다.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미국 방문은 약 1년 만이다. 요코타 다쿠야는 “우리 가족, 형제들이 아직 귀국하지 못한 사실에 괴로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회 전문가-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의 고통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즈카 고이치로도 “고령 가족에게 1

년이란 시간이 무겁다”며 “하루빨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지원과 협력,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회는 지난 2월 “부모 세대가 살아 있는 동안 모든 피해자가 일괄 귀국하면 북한 독자제재 해제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새 활동방향을 정리하고, 일본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요코타 다쿠야는 “(북한의) 긍정적 징후도 있다”며 “일본 정부가 수면 아래로 협상을 추진해 모든 피해자의 일괄귀국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는 남북자 가족의 고통화 등으로 관련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앙골라 로렌수 대통령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을 만나 양국간 무역투자-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앙골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앙골라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젊은 인구, 한국의 우수 기술력과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로렌수 대통령 역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앙골라에 협조를 통해 공유한다면 단단한 경제협력을 이룩할 수 있다”며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31년간의 협력 역사를 거론하며 “한국 기업들이 앙골

라 주요 시설 건설과 석유산업에 참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로렌수 대통령도 “31년간 양국이 많은 분야에서 협력했다”며 6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보건-외교-경찰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등 4건의 협정을 체결했다.

로렌수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앙골라 비즈니스포럼에서 한국 기업인들에게 앙골라 투자를 독려했던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또 최근 국제사회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용국 기자

# 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확인... 1200여건 규정 위반

편법 조직운영과 유명무실 내부통제가 비리 키워

감사원은 30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확인하고, 규정 위반 건수가 12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124회 400여 건, 지역선관위 167회 800여 건

등 총 1200여 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선관위 전·현직 직원 자녀 21명 채용 사례를 중점 점검해 특혜 의혹이 있는 9건 27명을 확인, 수사를 의뢰했다.

현의자에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

섭 전 사무차장 등 장차관급 3명이 포함됐다.

주요 특혜채용 수법은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채용 청탁 ▲지자체장 압박해 진출동의 받은 후 채용 ▲면접위원 구성, 점수 조작 등 편법 동원 ▲국회에 허위 자료 제출 ▲증거인멸 등이었다.

감사원은 편법적 조직인사 운영과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비리를 키

운 요인으로 지목했다. 선관위는 규정을 무시하고 스스로 조직과 정원을 과다 운영했고, 고위직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임기를 마음대로 축소하는 등 위법 사례가 다반사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헌법기관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채용-조직인사 운영이 관행화된 것은 불감증이 만연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박용국 기자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부츠(득점왕) 수상 손흥민

**안티푸라민**  
쿨에어파스 에어로솔 의약외품

# 대한민국이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유한양행**

# 정부, 일부 병원 휴진에도 “큰 혼란 없을 것”

## 중증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 위해 상황 파악 및 대응 예고

정부는 30일 일부 대형병원에서 하루 휴진에 들어갔지만 전면적인 진료 중단은 아니어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증·응급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일부 병원에서 외래와 수술을 중단하기

로 했지만 교수 차원의 휴진일 뿐 병원 전체가 진료를 중단하는 곳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제출 요청 시한인 이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했었다.

박 차관은 “다만 중증·응급환자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꼼꼼히

살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응급실 과부하 우려를 고려해 시설 구급차 이용 환자 추이를 조사했고, 경증 환자의 주요 병원 내원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요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올해 1조 4000억 원 투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료진과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집단 행동을 조속히 풀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와 중환자실 환자는 전주 대비 각각 6.9%, 1% 감소했고,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 입원 환자도 3.8% 줄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가 정상 운영 중이다. 이나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보건복지부

# 복지부 “연금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한 개혁 필요”

## 시민대표단 선호안보다는 재정부담 낮추는 방안 제시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공론화 의제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순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회의에서 “현행 9% 보험료율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이고 인구구조 변화로 세대간 이전도 어려워져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5차 재정추계 결과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전보다 2년 빨라졌다. 현행 9% 보험료

율, 40% 소득대체율 구조를 유지하려면 19.8% 보험료율이 필요하다.

공론화 결과 시민들이 가장 선호한 ‘더 내고 더 받는 안(13% 보험료, 50% 소득대체율)’은 기금 소진 시점을 6년 연장하지만, 제도 소진 후 미래세대 부담 보험료율은 43.2%에 달한다.

정 실장은 “소득대체율 10%p 인상에 5%p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데 이 안은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아 재정이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12% 보험료, 40% 소득대체율)’은 기금 소진 시점이 7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년 연장되고, 소진 후 필요 보험료율은 35.1%로 적정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군복무 크레딧 전체 인정,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적용 등 급여 확대 시에도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이 재정부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단 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높이면 모든 안에서 재정부담이 커진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나래 기자

# 법인실적 부진에 3월 국세수입 6조원 급감

## 법인세 납부 1·2위 삼성·SK 세금 내지 않아, 정부 세수진도율 ‘비상’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납부 실적 저조가 국세수입 감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6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성, SK 등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미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법인세 수입을 77조 7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3월까지 법인세 감소분만 5조 5000억원에 달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득세도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세와 증권거래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에 그쳐 최근 5년 평균 25.9%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진도율이 평균과 3%p 이상 차이 나면 ‘세수 핑크’ 가능성이 높아 지는데, 현재 2.8%p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정부는 4월 금융지주 납부실적과 6월 유류세 인하 일몰, 8월 기업들의 중간에 납 규모 등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 분석과장은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아 세수가 덜 견뎌졌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때 예상치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나래 기자

# 삼성전자, 고부가 ‘HBM’ 공격 투자... 판매량 3배 이상 늘린다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삼성전자 고부가가치 메모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며 수익성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HBM 출하량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이미 고객사와 물량 공급을 합의한 상태다. 내년에는 최소 2배 이상 더 확대할 예정이다.

차세대 HBM인 ‘HBM3E’의 판매 비중도 3분기까지 전체 HBM 판매량 66%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HBM3E 8단 제품은 2분기부터, 12단 제품은 2분기 중 양산에 돌입한다.

삼성전자는 HBM3E 고용량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HBM 생산능력(캐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등 신수종 시장에서 HBM 선점 경쟁에 적극 나서며 실적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1조 91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5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HBM 등 고부가 제품의 판매 신장이 주효했다.

다만 경쟁사 SK하이닉스도 HBM에 주력하며 1분기 영업이익 2조원에 육박했다. 향후 고객사 요구에 얼마나 적기 대응하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SK의 HBM 전쟁은 이제 시작됐다”며 “고객사 수요에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나래 기자

# 거시경제 충격에 ‘상흔 소비’ 영향... 외환위기 직전의 4분의 1 수준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소비 증가율이 외환위기 직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실업 경험은 장기적으로 가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30일 ‘실업경험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장기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1971~2008년 실질 가계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20.3%였지만 2009~2021년은 5.2%에 그쳤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거시경제 충격 이후 발생하는 이른바 ‘상흔 소비’ 현상이 가계소비에 영향을 주는지를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실업 경험은 가계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의 실업 경험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가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 경험으로 인한 미래 소득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중장기 가계소비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상흔 소비는 미래 소득 감소보다는 저축 증가를 통한 자산 축적 경로를 통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층별로는 소득 및 자산 취약계층의 가계소비가 크게 줄었고, 품목별로는 비내구재 중심으로 상흔 소비가 나타났다.

보고서 작성자인 최영준 연구위원은 “소득 취약계층의 소비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나래 기자

# 8개월 연속 ‘준공 후 미분양’ 증가... 정부 대책 ‘먹힐까’

분양시장 침체로 인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8개월 연속 늘어나며 정부의 대책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904가구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194호로 2.8%(327호) 늘어 지난해 8월부터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에서는 인천(648호)이 늘었지만 서울(490호)과 경기(1123호)는 줄었다. 반면 지방에서는 3.7% 증가했는데, 대

구(1306호, 20.4%), 경북(1008호, 27.6%)이 특히 심각했다.

국토부는 1.10 대책을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10년 만의 CR리츠 부활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2816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했다. 1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수도권은 20.1%, 지방은 22.5% 늘었고,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각각 20.7%, 23.9% 증가했다. 이나래 기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K-eco

with

# ESG

**ENVIRONMENT**  
탄소중립경영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환경경영

**SOCIAL**  
사회책임경영

포용적 환경서비스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책임경영

**GOVERNANCE**  
준법윤리경영

공정중립의 가치를 구현하는 준법윤리경영

**한국환경공단은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를 위해 ESG경영을 실천합니다**

# 선교, 그 문턱에서 망설인다면... 능력 보다는 순종이다!

토렌스 조은교회 김우준 목사 메시지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수는 대략 30억 명이다. 미전도 종족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의 수는 대략 47억 명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 명당 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30명이 있기 때문에 6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60억은 47억을 훨씬 더 뛰어넘는데 도대체 왜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지난 21일 김우준 목사는 <선교, 그 문턱에서 망설인다면>(마가복음 16장 15절)라는 설교에서, 모든 크리스천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대사명을 받았음에도 선교를 망설이는 이유와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전했다.

◆**임종의 순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그는 셸리 티스데일의 책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는 책을 인용해, 수많은 사람들이 임종의 순간 가장 후회하는 것은 “평생을 시급한 일을 쫓아다니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승전하기 직전 유언처럼 남긴 대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언급하며, 이 사명 앞에 순종을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해 설명했다.

“만약 내가 의사라면 의료 선교를 통

해 선교하겠습니다. 혹은 미술 기술이 있거나 다른 전문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전문 기술이 없습니다. 내가 젊다면 젊음의 패기를 가지고 몸모로라도 봉사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짊어지게 하셨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함께 제공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며 “능력을 이미 받았는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메시지, “능력보다 다 상황이다”를 선교 현장에 적용해서 설명했다.

“심리학자로 유명한 김경일 교수가 반복적으로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능력보다 다 상황이다’라는 메시지이다. 각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



김우준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토렌스 조은교회

는데 있어서 각 개인의 역량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이라는 메시지이다.”

◆**80대 권사님.. 알고보니 가장 유능한 선교사**

그는 선교 전 모임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던 80대 권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간증하기도 했다.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능력이 발휘되지 않을까? 선교지에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 머물러 우리의 삶은 평생 평범하다. 그러나 순종하여 선교지로 나아가면 능력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은 오직 왕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백서교 단기 선교팀이 고아원에 가서 BBS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적이 있다. 선교팀 인원 중에 80대 권사님이 계셨다. 그 분이 뭘 하실 수 있는지 고민했는데 맡겨드릴 사역이 아무것도 없어서 난감했다. 그런데 잠으로 놀랍게도 선교지에 도착하고 보니 그때부터 이 분이 가장 유능한 선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도착한지 한 이틀 정도 지났

때 고아원에는 한 아이가 밥을 너무 급하게 먹었는지 호흡 곤란이 오기 시작했다. 그때 권사님이 신속하게 그 아이의 손을 따 주자 아이가 숨쉬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수많은 아이들이 권사님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좀 못 주고 영어도 못하고 소그룹을 운영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쓰다듬고 따뜻하게 품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 영어도 못하고 스페인어도 못

하셨기 때문에 한국말로 기도하셨다. 그런데 그분의 그러한 사역이 그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 고아로서 항상 따뜻한 손길에 목말라 했는데 권사님이 오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꼭 안아 주셨던 것 자체가 감동이었던 것이다. 한마디도 이해 못 했지만 온 마음으로 사랑을 느낀 아이들이 권사님을 따라다녔다. 우리가 떠나오는 마지막 날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권사님께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며 가장 아쉬워했다.”

“권사님이 준비모임 첫날에, ‘전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했던 것은 자녀를 키우고 손자를 봐준 것 밖에 없어요’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최고의 자격 조건, 최고의 능력이었다. 자녀를 키우 주신 사랑과 정성으로 고아들을 대했을 때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과 생명이 흘러갔다.”

◆**전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치명적 생각**

마지막으로 그는 선교의 문에서 망설이게 만드는 세번째 요인을 설명하며, 이것이 전세계 복음화를 가로막는 원인이 라고 말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의 문에서 우리를 망설이게 만드는 고민은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다. 이것이 세계 선교 역사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된 치명적인 생각이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수는 대략 30억 명이다. 미전도 종족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의 수는 대략 47억 명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 명당 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30명이 있기 때문에 6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60억은 47억을 훨씬 더 뛰어넘는데 도대

체 왜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일까?”

“모두가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저 사람이 전도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수는 극소수이고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되겠지라고 생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2천년이 흘러 지나가도 세계 복음화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상기시켜 주는 한편의 드라마가 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인데, 출세와 성공의 길을 다 내려놓고 변방으로 가서 정말로 취약계층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병원이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환자들을 사회 가장 취약 계층이다. 병원에서 다니다가 길 위에서 죽게 된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와 비슷하다. 절실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전도해야 돼?’ 라고 책임을 미루면서, 생명과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사랑을 맞이한다.”

“우리는 마지노선이다. 우리가 물러서 버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 마지노선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최후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우리가 세상을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만 큼은 변화시킬 수 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대는 심장이 하나님의 그 심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몰릴 듯이 밀려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되길 기도한다.” 토마스 멩 기자

## “금식, 경건한 삶 위한 영적 실천이자 고통에 참여하는 사랑 실천”

최창국 교수, 30일 복음과 도시서 금식에 대한 메시지 전해

최창국 교수(백석대 실천신학사신)가 30일 복음과 도시 홈페이지에 ‘이사야가 교회 금식에 답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최 교수는 “성경에는 금식의 이유와 목적이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먼저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금식을 하였”이라며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며 금식하였다(삼상 31:11-13, 삼하 1:11-12).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을 기뻐 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였다는 것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자기 원수였지만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기고 난 후에 금식할 것이라고 하였다(마 9:14-15). 이처럼 금식은 극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행하였다”고 했다.

이어 “다음으로, 개인의 죄나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금식하였다”며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은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금식하며 회개하였다(욥 3:3-10).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계 선교에 대한 성령님의 계시를 받게 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비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행 13:2-3)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금식에는 또 다른 목적도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실한 봉사를 하고자 할 때, 내적으로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금식하였다”며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금식도 바로 이

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다(출 24, 왕상 19, 마 4). 예수님은 사십일 금식 후에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교회 안에도 금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한국 교회 안에는 금식에 대한 신앙과 공식이 있다. 하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금식은 물론 먹고 해야 한다는 신앙과 공식”이라며 “그렇다면,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어렵게도 성경의 답은 그 반대이다. 성경의 사람들과 초기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먹고 금식을 하였는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한국 교회 안에는 이사야 58:6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가르치며 설교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식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금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영적 실천의 일부였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하면서도 이웃을 압제하며 위선적인 일을 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금식보다는 ‘홍야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깨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신다”라며 “금식은 정의로운 삶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진정한 경건은 금식보다

사회 정의와 인권과 관계된다는 말씀이다. 성경은 금식을 근본적으로 금하지 않는다. 금식은 영성 생활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금식의 목적을 재정의하고 있다(사 58:6)며 ‘하나님이 바라보는 참된 금식은 이 땅에 존재하는 불의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불의에 대한 가장 온당한 반응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연민을 가지고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이사야가 말하는 금식의 목적은 정의와 연대이며, 다른 하나는 거룩’이라고 했다.

이어 ‘이사야가 말하는 금식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세상 속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위해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금식의 첫 번째 목적은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적 배플기 위한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의를 실현하는 방편이다. 금식하면서 먹지 않은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플고, 금식함으로써 절약된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거룩한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금식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자신을 베푸기 위한 것이었다. 금식은 자신의 거룩한 삶과 스스로 가난을 경험하며 다른 사람의 가난에 반응하는 몸의 빈곤을 경험하는 실천이었다”며 “금식은 경건한 삶을 위한 영적 실천이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경청하며, 그 고통에 참여하기 위한 사랑의 실천이었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NCSI  
국가고객만족도 (NCSI)  
아웃도어부문 10년 연속 1위  
(2014~2023)

# 영자를 완성하다

MOUNTAIN JACKET

Waterproof  
Breathable

**M'S GTX MOUNTAIN 3L JACKET**  
559,000

제품 문의 대리점 (02) 940-1158 백화점 (02) 940-1169 ■ 공식 온라인 스토어(www.thenorthfacekorea.co.kr)는 인터넷에서 [노스페이스]를 검색하세요.

# 예수만이 구원이다!

본문: 롬10:9-15  
설교: 삼척제일교회 박신진 목사



<라이언일병 구하기> 영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는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전쟁사에 길이 남을 성공한 작전으로 알려져 있다. 2차 대전은 승리로 이끈 결정적 전투였다. 그러나 실상은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희생한 피의 역사이기도 하다. 1944년 6월6일 D-Day 작전에 투입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연합군 병사는 16만명에 달하고, 방어를 맡은 독일군은 5만명에 달했다. D-Day 당일 사망자와 부상자수는 연합군이 약 5000명, 독일군이 9000명에 달할 정도로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다.

<라이언일병 구하기>는 스티븐리처의 유명한 스티븐 스피버그가 감독한 영화이다. 유대계 미국인인 스피버그는 학창시절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유대 인임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 마음의 빛을 <스티븐리처>에서 봤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라이언일병 구하기> 역시 여러 차례 전쟁에 참전하며 전쟁의 비참함을 경험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빛을 갖기 위해 제작했다는 후문이다.

<라이언일병 구하기>는 미군을 영웅적으로 그리지 않고, 전쟁을 미화하지도 않았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정부가 반전 움직임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 전쟁의 참상을 감추고, 애국심을 돋우기 위해 오직 미국이 승리하는 장면만을 편집해서 뉴스로 방영한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군 사망사실을 알린 것은 유럽에서 독일군이 항복하고 일본군과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고 나서가 처음일 정도로 미국정부는 수많은 미군이 전쟁에 사망하고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감쌌다.

스티븐리처는 <라이언일병 구하기>에서 전쟁이 결코 낭만적이고 달콤한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며 승리 과정에서 결국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하는 피의 현장이라는 점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을 엄청난 전쟁의 현장에서 그려준다. 전투장면이 생생하고, 상상 이상으로 처참해서 이 영화를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보지 못하고 나와버렸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이 영화는 피 튀기는 오마하 해변 전투 이후 존 밀러 대위(롬 헝크스)와 부대원들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다룬다. 극중 라이언 일병의 모티브가 된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육군 제101공수사단 501연대 3대대에서 복무한 병장 프레더릭 날랜드로 알려졌다. 영화에서는 라이언의 다른 세 형제들이 전쟁에서 사망하면서 미군 수뇌부가 살아남은 막내 라이언을 부모의 품

으로 돌려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 속으로 부대를 파견한다. 병사들은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들어가 목숨을 걸고 전투하여 구해내고야 만다. 한 생명을 구해내기 위한 병사들의 처절한 희생과 투쟁은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 할 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일까? 후회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자기 일에 성공하여 이름을 널리 떨치는 일인가(임신양명)? 돈을 많이 벌어서 뭐든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일까? 누구에게 좋은 선물을 주거나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일까? 뛰어난 운동선수처럼 승승장구하여 사회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 다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귀한 일은 영혼을 구하는 일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누군가의 영혼을 죄악과 죽음에서 구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일 것이다.

영혼을 구하는 일은 복음으로만 할 수 있다. 수양으로, 혹은 훈련으로, 때로는 친목이나 교육으로 영혼이 양육되고 발전될 수는 있으나, 본성이 변화되어 구원받는 길,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길은 복음 밖에 없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롬10:9-10) 명문대학에 들어가도 뛰어난 재능을 닦아서 어느 경지에 이르러도, 깊은 교양과 도덕을 수양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로는 사람이 진정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다. 복음으로, 예수님으로만 새로워진다.

1) 예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예수님은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시간과 육체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지배를 받는 상대적인 존재로는 우리를 생명의 본질로 인도할 수 없다. 그들도 길을 찾는 사람들 뿐이다. 우리를 생명의 본질로, 하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 온 분이리라 한다. 예수는 하늘에서 오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몸을 입으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우리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구주시다.

2)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신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파멸과 죽음으로 떨어지게 하는 죄의 형벌에서 구할 수 있다. 물로도 불로도 씻을 수 없고 태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흉악한 죄이다. 우리는 마음 속에 죄짓고 싶은 동기가 숨겨져 있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데에 익숙하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할 때에도 사실은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으로 죄를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 마음의 죄와 행위의 죄, 그리고 뾰족 깊이 새겨진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짚어지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 죄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 예수를 믿을 때만 이 하나님의 용사가 임하여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하신다!

3) 또한 예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천국, 이상향은 '유토피아', 이 땅 위에는 없다. 많은 사람이 이상향을 꿈꾸고 이 땅 위에 이상세계를 이루려 하였으나 이 땅 위에 완전한 나라, 완전한 세상은 없다. 공산주의, 계몽주의는 이 땅 위에 경제적 이상향, 문화적 이상향을 이루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 지금도 정치하는 이들은 결국 이상향, 천국을 이루려고 애쓰는 중이다. 어렵다, 안 된다. 천국을 꿈꾸다 지옥을 보여주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으며, 예수 말씀대로 살면 이 땅 위에 천국이 이뤄질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 이상향을 꿈꾸는 자들은 예수를 따르라! 예수만이 천국을 이 땅 위에 이뤄주시고, 예수만이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을 천국의 안식으로 인도할 것이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다. 예수 이름만이 길이요 생명이다. 예수 이름만이 영원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먼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잠잠한 이들이 묻곤 팔듯 생각하여 부끄러워하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을 적인 줄은 어떻게 부를 수 있었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롬 10:14) 선포하는 것은 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말씀대로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더불어 불신자에게 교회를 알려주고 전도하는 것과 함께,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한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며, 믿음은 있으나 잘못 믿거나 심히 연약한 사람들을 바르게 강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전파는 잘하는데,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바르게 자리하도록 양육하는 데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인은 느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따라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바로 서도록 돌보아 주어야 한다. 잘못 믿거나 심히 연약한 사람들을 바르게 하고 강하게 하는 데 공동체는 힘을 쏟아야 한다.

즉, 우리의 전도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1)복음 전하는 일, 2)뿌리내리게 하는 일, 3)바르게 자리하도록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영혼을 구하는 일이다. 우리는 4월과 5월 두 달, 여섯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불신자와 일반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는 말씀대로, 예수 이름이 구원을 주시기에, 예수 이름이 참 평화를 가져오고, 예수 이름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에게 주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들을 예수 이름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진실하게 뿌리내려야 하고, 바르게 자리나서 열매를 맺기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바로 전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역이 중요하네. 그것은 뿌리내리게 하는 전도와 바르게 자리하도록 하는 전도이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 이름을 받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문턱을 넘은 것이다. 여기에서 더 진진하게 해야 복음은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교회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무얼 믿는지 모른다. 어떻게 믿음을 이어가야 할지 잘 모른다.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심겨졌으면 뿌리내려야 한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스스로 예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조금씩 믿는 재미를 느끼는 것이다. 예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자라가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것이다.

뿌리가 내렸으면 자라가야 한다. 예배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전도받아 뿌리를 내린 성도는 하나님과 사랑을 사랑하게 되면서 참된 것을 하며 자라간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된다. 이것이 성화요, 믿음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직장, 가정, 거리에 나가 열심히 사랑을 전하게 되면 세상이 예수로 가득찬 세상으로 변하게 된다. 우리 전도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복음 전하기, 뿌리 내리기, 예수로 살아가는 3 단계의 전도이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를 전하여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큰별 김익두 목사는 1874년 황해도 안악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이 일찍 돌아가신 가정을 일찍부터 돌보았던 그가 사기를 당해 모든 재산을 잃게 된 것이 그로 하여금 타락의 생활을 하게 된 계기였다. 날마다 주색잡기에 빠져 방탕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량배가 되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강제로 돈을 빼앗아 "김내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다. 그는 어느 날인가 집에 나갔다가 서양 여자가 전도하며 전해준 전도지를 받았다.

전도지를 받은 김익두는 '뭐 나더러 양귀신을 믿으라고?' 하며 전도지도 코를 풀어 길바닥에 뽕개치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자는 "청년 전도지도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하는 것이었다. 그 후 그는 '어느 모로 보나 자기보다 개화되어 있는 서양 여자가 멀리 이국 땅에 와서 저러는 것을 보면 무언가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 친구인 박태후의 전도를 받아 교회엘 나가게 된 것이다. 그는 순한문 신약성서를 100번 읽으며 신앙에 심취했고 그 과정에서 가슴을 칼로

찔 것 같은 불세례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가 40일간 금식기도를 하고 산에서 내려 올 때 큰 불덩어리가 가슴에 떨어져 화끈거리는 체함을 하였고 하늘에서 "김익두야! 김익두야!"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임을 깨달았고 하염없이 울며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그의 사역에서는 특히 치병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심지어 암택권 목사는 '이적증명회를 만들어 김익두 목사의 집회 현장에서 이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사면을 찍어 그것을 증명했는데 약 일만명 가량의 치병자를 추측하고 있다. 전도가 이뤄낸 기적이다.

저희 내내는 지난주에 어느 세미나에 가서 그곳에서 만난 어떤 사람과 자기 딸 믿음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부모는 두분 다 퇴직교사이고 딸이 의사인 집안인데, 딸 가정이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원래 사위는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결혼할 때 진정엄마가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어쩌려고 결혼하려느냐 걱정하니 '염려말라,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할 사람이라고 하여 말리지 못했다 한다. 손자를 낳고 사위가 남의 손에 아기 양육을 맡기기 어려워 해서 진정부모가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속회 같은 소그룹 신앙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엄마가 놀랄 정도라고 한다. 그 속회는 딸네 집에서 매주 모이는데 의사속회라는 것이다. 서울대대대를 나오고 병원에서도 바쁜 사람이지만 매주 속회만은 자기집에서 모여 식사대접을 매주 준비하여 낸다고 한다. 의사 가정이 걸로는 좋아보일지 몰라도 생각보다 힘든 경우가 많고 아이들도 문제야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앙모임에 참여하면 말씀과 예수 사랑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문제도 많이 해결된다고 한다.

나중에는 속장님 혼자 음식 준비가 힘들니까 우리가 협력하자 해서 모든 속도가 음식을 사오든지 만들어오든지 한가지씩 준비해오면,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되더라는 것이다. 아이가 자폐증으로 매일이 지옥 같았던 한 가정은 아이가 금요일 모임을 기다리고 오면 가족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며 즐거워하기 때문에 치료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사위도 의사인데, 지금은 사위가 딸보다 훨씬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전도가 가져온 기적이라는 사실이다. 전도와 양육이 신앙을 삶이 되게 하고, 말씀이 육체를 입게 하여,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롬 10:14-15) 우리는 오늘 전도하라 나간다! 오늘의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 하자! 예수가 생명의 길이요, 죄로부터 구원해주시며, 우리 생활에 천국을 가져다주신다! 할렐루야! 영혼을 구하라 하자!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실 것이다!!

SAMJIN 삼진제약



#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필 : 2022 - 1618 - 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빈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힘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 WCC의 종교다원주의 문서 및 총회(통합) 에큐메니컬위원회 문서 평가(4)



**소기천 교수**  
전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한국교회정론 대표

## 2) 바아르 선언문의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신학적 이해

바아르 선언문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종교 다원주의의 전체 영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전을 준다고 전체를 하면서 기독교인이 종교 다원주의를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다"(고린도전서 15-18장)라는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만남이 깊어지는 기회로 간주한다. 이러한 주장은 만유재신론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종교 다원주의의 이념을 보여줌으로써 타종교와의 대화를 조건 없이 추진하게 된 신학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바아르 선언문은 기독교인이 "

하나님께서 다른 신앙을 가진 남성(과 여성)에게 주신 지혜, 사랑과 능력"(1961년 뉴델리 보고서)에 대한 새롭고 더 큰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 타종교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CWME 보고서, 1989년 샌안토니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이미 1961년의 뉴델리 보고서와 1989년의 샌안토니오 보고서를 기초로 한 것인데, 이 두 보고서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바아르 선언문이다.

이제 종교 다원주의에 집착하는 바아르 선언문은 금기를 넘어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타종교인에게서 선과 진리와 거룩함을 인정하면서 보편적인 창조와 구속적인 활동에 관한 대화 지침(1979)에서 제기된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을 우연한 돌출행동이나 아니다. 이미 WCC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종교 다원주의의 숨겨진 이빨을 드러낸 것이다. 이로써 WCC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음의 특권이 실종되고, 모든 인류에 대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 활동(23항)과 관련하여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개인적 헌신으로 한정하는 신학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이 더욱 타지듯이 밀려오게 되었다. 여기서 개인 구원은 넘어서야 할 신학적 도전 앞에 서게 됨으로써, 타종교와의 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구원이 지닌 절대성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그럼 타종교와의 대화를 위해 종교 다원주의가 받아들여지고, 예수를 통한 구원이 절대성이 포기되는 상황에서 개인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아르 선언문의 "성령과 종교 다원주의"라는 항목에서 "교회 밖의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의 견지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질문과 관련된 대화를 위한 지침(1979)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 성령께서 살아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과 전통에도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장한다. 문제는 '살아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타종교와의 대화를 추구하는 WCC 입장에서 반드시 기독교인이 국한되지 않

는다는 사실이다.

과연 타종교에도 성령이 있는가? 성령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내용으로 타종교에는 전혀 없는 삼위일체 신학이 핵심이다. 그런데 과연 타종교인에게 성령을 인정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바아르 선언문의 종교간의 대화: 신학적인 관점에 주목해보면, 바아르 선언문은 양비론으로 종교 간 대화는 "쌍방향의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인은 열린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장하는 쌍방향은 사실상 타종교인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의도를 바친 것이다.

더구나 바아르 선언문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기독교인은 신성한 신비의 측면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타종교인의 증언이 기독교인에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는 주장일 뿐이지 알맹이 없는 내용이다. 오히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무력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 새벽기도를 하는데, 승려들은 새벽 염불을 4시에 시작한다. 그럼 5시에 시작하는 기독교인의 새벽기도회가 승려들보다 시간이 덜하기에 못하다는 것인가?

바아르 선언문은 앞서도 언급한 단어를 여기서 다시 언급하면서, 기독교인은 살아 있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이 기독교 진리를 더 완전하게 이해하는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독교의 특수한 경건이나 기도생활을 타종교와 비교하면서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기에 도움이 안 된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무력화시키고 무슨 타종교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바아르 선언문을 따라서 타종교와 대화 및 종교 다원주의를 실천하자는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문을 닫게 된다. 바아르 선언문에서 언급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타종교와 비교하려는 의도는 드디어 2002년 WCC 중앙위원회의 "종교의 다원성과 기독교인의 자기 이해"에서 본격화된다.

<계속>

##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권준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간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삽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로교 신학교 채플에서 설교했습니다. 장신대 채플 설교는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얼마 전에 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계시던 교수님들도 많이 은퇴하시고, 제 설교를 들었던 학생들은 벌써 현역의 목사님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그 세월이 지나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 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찬양하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4일간 동안 시온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그 교회의 올해 표어를 보며 좀 의아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가 표어였습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에 집회하러 갔어도 이런 표어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별난 표어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의 분위기를 알게 되면서 정말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선 교회의 분위기가 아주 밝았습니다. 서로 인사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고, 그 습관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식당에서 만나는 종업원과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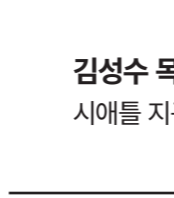
른 사람들 등을 가리지 않고 반갑고 공손하게 인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밝은 인사를 받은 식당의 주인이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들의 친구네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는 간증들을 무수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95년에 한국 한 교회에 설교해 준 첫날 교회에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나오는 어떤 분과 마주치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화들짝 놀라며, "혹시 저를 아세요?"라고 물었던 적이 있어 저도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나 문 앞 등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르는 사람은 인사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생활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탄 시온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은 그 한국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먼저 다가와 인사하고 그분들과 삶을 나누려 애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그 문화를 지역 사회에 잘 퍼뜨리며 살고 있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형제와 지도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와 인사하고, 애써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멀리 퍼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김성수 목사**  
시애틀 지구촌교회

최근 저는 한 크리스천 의사를 만났습니다. 세상이 참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손님이 한 경찰 공무원의 말을 빌려 "요즘은 가정이 다 무너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야기인 죽순, 과거에 "어머니"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이미지가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이제는 상실되었다고 합니다. 그 경찰은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자

식을 죽이고 유기하는 일들을 목격할 때마다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그것을 많이 목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생활에 너무나 회의가 들어 이직을 생각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모나 어머니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녀의 장래를 위해 희생하고 보호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실제(real) 지역뉴스나 기사를 본다면 아마 구역질이 나서 계속 보기가 역겨울 것입니다. 이 사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망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는 무너진 가정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녀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녀들의 인생을 망쳐 왔습니다. 자녀를 입장에서 부모보다 다른 미디어나 세상 영향을 받아 자유롭게 사는 친구들 이야기가 더 흥미롭습니다.

자신의 인생 기준이 돈이나 세속적 성공이라면 부모는 필요에 의한 대상일 뿐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벗어나려 할 것입니다. 이런 명목상의 관계에서 가정의 가치나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교육은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럼, 그냥 방관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 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 하나님의 교회



**성준근 목사**  
타코마 반석장로교회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모임과 장소입니다. 가정은 가족이 있어야 하고 함께 모이는 장소

가 있어야 온전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 가정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이자 그 가족 구성원입니다. 교회(하: 카알, 헬레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새 언약의 자녀들로 세상과 죄와 사망에서 불러 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출타를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안정과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나눕니다. 성경은 이런 교제를 신령한 교제라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릅니다.

오늘날에 가정과 교회의 위기가 많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성적 타락과 무질서와 배려와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 되어 물질화되고 자기중심적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도 진리, 거룩함, 의로움, 은혜와 평강과 사랑 대신 자기의 욕심과 세속적 기복의 치우심과 세상의 안목과 정욕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기억해야 할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몸인 교회, 신부인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에서 서로 하나님의 초소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사랑 교회 사랑입니다.

# 세상에 행복을 **가** 놓는다.

##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 은퇴 및 후계자 선정



**정태희 목사**  
DCMi 선교회 대표

## 정태희 목사의 삶과 리더십(18)

목회자의 경력에 어떻게 목회했느냐 만큼 중요한 사안은 어떻게 은퇴하느냐이다. 목회자로서 평생 훌륭한 족적을 남긴 선배들이 적절할 시기에 은퇴하지 못해 자신의 업적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 아픈 것은 필자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현재 교회의 영적 상태, 적절한 후계자의 부재, 나아가 은퇴하는 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능력 결핍 등 적절한 시기에 은퇴할 수 없는 이유는 다양하다. 은퇴 이후 자신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십 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지켜왔던 목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은퇴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사역의 최전성기에 은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은퇴는 목회자가 가진 역량과

에너지가 전성기를 넘어 쇠퇴기에 이르렀을 때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탄생, 성장, 번영, 쇠퇴, 사멸의 과정을 밟아간다.

쇠퇴와 사멸의 사이클에 들어가는 것은 수직스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목회자가 쇠퇴의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은퇴를 통해 사역의 바통을 차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람직한 세대교체는 없을 것이다.

로마는 2세기에 가장 큰 번영과 풍요를 누렸다. Edward Gibbon은 <로마제국 쇠망사>에서 2세기 로마야말로 인류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고 말한다. 이 시기 로마가 이런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다섯 현제가 로마를 통치(A.D. 96-180)했기 때문이다.

로마의 가장 위대한 황제(리더)가 다섯 사람이나 연이어 재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열쇠는 후계자 발탁이었다. 5 황제의 첫 황제인 네르바부터 자신이 권력의 최정상에 있었을 때 후계자를 발탁하여 세웠기 때문이다. 양병무는 권력의 최정상에서 후계자를 선택할 수 있

었던 5 황제의 해안을 <행복한 로마 읽기>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아들은 고를 수 없지만 후계자는 고를 수 있다."

마 9:37-38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런 당부의 말씀 이후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요사이 리더십 아후로 말하면 "인파워먼트"이다. 바로 다음 절에는 주님이 불러 세운 열두 사도의 이름이 나온다. 주님은 이들을 훈련하였고, 이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였으며, 사역을 위해 이들을 임파워하셨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일꾼을 훈련시켜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한 이후 사역을 위해 인파워하겠다는 헌신을 전제한다. 목회자가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기는 쇠퇴기가 아닌 전성기이다. 은퇴를 준비해야 할 최적기는 사역의 최정상에 있을 때이다.

# 가족 형성사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평택

가족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가족이란 공동체를 통과하면서 인간으로 살아갈 인격과 인간관계,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가족 형성사를 가지게 된다.

출생과 양육,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한 인격체로 정체성을 가진다. 성장 과정 초기는 거의 타의에 의해 살아가는 단계이다. 중기에는 도전과 실험적 삶을 살다가 후기에는 자기완성과 성숙기로 마무리를 짓는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

이런 인생의 역사를 너무 단순하게 본 것인지는 모르나.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가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인간은 인생의 역사를 쓰게 된다. 가족 안에서 태어나 가족형성사를 기록해 나가

는 것이 인생이다.

필자의 부모님 가족 형성사를 보면 세 카운터로 전개할 수 있다. "일본", "6.25", "고향"이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일본으로 이주해 어머니와 결혼해서 해방과 동시에 고국에 돌아왔다. 물론 빈손으로. 상업미술 화가로 잘 나가다가 6.25를 맞아 온 가족은 다시 이주했다. 그리고 정착한 제2의 고향 진해에서 군무원, 극장, 간담점을 운영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셨다. 아버지는 가족 중심으로 살아오셨다. 가족공동체를 중하게 여기셨다.

필자도 아버지 영향을 받았다. 인생 초기에는 타의에 따라 학교와 군대 복무로 보냈다. 중기에는 26세에 결혼하고, 시골 농촌교회를 개척했다. 상당한 용기와 도전이 필요했다. 후에 더 오지로 들어가 규모가 있는 농촌 목회를 하며 성장했다. 인생 세 번째 단계에는 소도시 전통 깊은 교회로 부임한 교회에서 29년 사무하고 은퇴했다. 전체 목회 기간은 40년이었다.

지금은 인생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 그건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인트하우스평택 사무실을 개원하고 시민들을 섬기고 있다. 가족행복학교와 노년교회(은퇴자 예배모임), 스튜디오107(미디어 사역), 준비

중인 사역은 목회자돌봄센터, 살려자유학교(홈스쿨 지원 대안학교), 넥스트 레벨 커뮤니티(다음 세대 공동체)를 꿈꾸며 노력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가족이 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족이 가족을 섬기는 철학이 있다. 가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꿈꾸게 되었다. 가족의 힘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가족이 동일한 목표로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족형성사의 아름다운 결실이다.

인생 초기에 어떤 가족을 만나느냐에 따라 나머지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부모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단단해진 자녀는 도전과 실험적 인생을 잘 헤쳐나간다. 이로써 얻는 자신감은 인생 말기에 성숙한 단계를 걷게 될 것이다.

신은 우리에게 가족 형성사 한 편씩 쓰고 오라고 우리를 보냈다. 그러기에 독신주의와 출산을 주저하는 풍조는 정상적 사회가 아니다. 불리한 가족형성 요소가 많은 사회이지만 도전해 보자. 신적 소명을 소중히 여기자. 진정한 행복은 가족공동체를 통해 누린다. 세상은 이런 가족들로 채워져 감으로 더 아름답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

# 교육부와와의 강단교류



**이민규 목사**  
횡성교회(제일장로교회)

어릴적 중고등부 때를 생각해 보면 수련회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주일에 담임목사님이 직접 설교하셨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미국에서는 한어부와 영어부가 나뉘어 있어서 그런 현상이 한국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윌로우크릭교회의 전 담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교인 집회에 심방을 갔다가, 그 집 부모님이 심대 자녀를 불러 담임목사님께 인사를 시켰는데, 그 아이가 윌로우크릭교회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윌로우크릭교회가 아니라 당시 그 교회 내 유스그룹 교

회를 다닌다고 말하며 또한 자신의 교회 담임목사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의 모든 부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가족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1, 2부 모두 교육부에 내려가, 청년들과 유스그룹에서 설교하고, 장년부 1부는 청년부 목사님이, 장년 2부는 유스그룹 목사님이 말씀을 저 대신 전하십니다. 교육 여러분들은 교육부 목사님들을 통해 말씀을 전해 들으셔서 교육부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교육부 학생들은 담임목사에 심방을 갔다가, 그 집 부모님이 심대 자녀를 불러 담임목사님께 인사를 시켰는데, 그 아이가 윌로우크릭교회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윌로우크릭교회가 아니라 당시 그 교회 내 유스그룹 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차세대 교육부는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그들이 교회라는 영적 울타리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 받고 훈련받아 가정과 사회로 나갈 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꾼으로 세계 될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희뿌연 연기 속에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이냐 구별이 되지 않는 시대에, 복음으로 밝히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앞자리를 채우며, 소득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며, 사회의 구성구속으로 나아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가올 세대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강줄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 예수의 기도(1)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예수의 기도>란 책은 동방 정교회에서 영성 수련의 입문서로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한 시골에서 여인숙을 경영하며 살던 한 젊은이가 그의 기도 생활의 체험기를 적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 출간되어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알려지지 않은 저자는 중졸 정도의 학력으로 부모가 물려준 여인숙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었습니다. 이를 비판한 아내조차 병으로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여인숙조차 불이 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중 신부님이 강론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강론 하셨습니다. 그 강론을 들으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밥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일도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일어나 미사 드린 후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신부님, 잠도 자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

요?"

그러나 신부님께서 확실한 답을 알려 주지 못하였습니다. 여인숙마저 불이 타 타버려서 붓집을 지고 순례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유명한 수도사나 신부님을 만나면 그 의문을 묻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여전히 순례길을 걷고 있는데 한 수도원의 원장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중에 자신의 고민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원장님께 일러 주었습니다.

저녁나절 원장님의 수도원에 당도하자 그곳에서 하루 저녁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침나절 헤어질 때 원장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길을 찾고 있다지? 우리 수도원에서 기도 생활의 초심자(初心者)들에게 권하는 <예수의 기도>를 해 보겠는가?> 하였습니다. 젊은이가 가까이 응하자 <예수의 기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예수의 기도는 복음서 중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짧지만 기도의 요소를 골고루 갖춘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예수의 기도의 전문입니다. 이 기도를 마음을 모아 되풀이, 되풀이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도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 수백 번, 수천 번 되풀이 하는 중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임재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형
---------	---------	---------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구독문의 02-6085-8166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광고문의 02-6082-8165  
 구독신청     대표구좌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45명 중, 25명 생존 확인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45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23년 6월부터 12월생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32명(71.1%)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했다. 생존 확인된 25명은 출생신고 완료 11명, 출생신고 예정 9명, 해외 출생신고 5명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출생신고 지연이다.

해외 출생신고는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했다.

출생신고 아동 25명의 양육상황은 가정 내 양육 23명, 시설입소 1명, 친인척 양육 1명이었

다.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1건,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한 경우는 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3건이었다.

한편, 사망 아동 6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건과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

로 의심되는 건이다. 의료기관 오류 1명은 유산임에도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경우로 확인됐다.

지자체는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13명(28.9%)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유기 12명, 보호자 연락두절 1명이다.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종결한 건은 1명이며, 아동보호시

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총 4회의 조사를 통해 2010년생부터 2023년생까지의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라며, “출생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루리 기자

## 5월부터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제공한다… 단계적 전국 확대

식사 제공 중인 경로당에 양곡비 등 추가 지원  
식사 미제공 경로당, 시설 보강 거쳐 지원 계획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경로당에 단계적으로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국 경로당은 6만9000개이며 식사 제공을 위해선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5월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 5만8000곳에 대해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한다. 이 곳에서는 평균 3.4일 식사를 제공했는데 지원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하게 된다.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별 연간 8포 지원되는 양곡비를 추가로 4포를 늘려 연간 12포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지

원하고 있는 식사 제공에 필요한 밀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방난방비양곡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5만6000명이 급식지원 인력으로 참여 중이다. 식사 제공 일수 확대에 따라 경로당에서 직접 조리해 식사하는 곳에는 급식 지원 인력 2만6000명을 추가 투입한다.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보수, 리모델링 등 필요현황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체 기능보강 등으로 조리공간 및 시설이 확보되는 경로당은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준비되는 대로 즉시 지원한다.

또한 주 7일 경로당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지자체 시범 공모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해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말에도 운영하는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경로당은 총출발 접근성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이용시설”이라며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다른 기자

## 오늘부터 병원·의원서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된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 발생 후 4년 4개월 만 완전한 일상회복  
코로나 격리 권고 기준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돼

5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방역 의무 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뀌면서 병원·의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코로나 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회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사실상 코로나19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역미 청장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이뤄져 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국내 첫 사망자가 나온 직후인 2020년 2월 23일 '심각'으로 격상됐다가 3년 4개월 만인 지난해 6월 1일 '경계'로 한 단계 낮춰진 바 있다.

이번 위기 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이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 4705명이었지만 4월 둘째 주에는 2283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방역에 적용됐던 모든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코로나 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도 권고로 바뀐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보호자 선제 검사 의무는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에 이미 권고로 전환됐다.

의료지원도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약 1만~3만원대의 본인 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도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 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RAT)를 계속 지원한다.

입원 치료비의 경우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되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팩스

로비드 등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준비 중이다.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4-2025절기 백신 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무료 접종한다.

코로나19 양성자 검사체계는 종료된다. 코로나 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운영도 종료된다. 다만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지 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 받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루리 기자

##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의료비 부담 절감 기대

철분 주사제 대상 14.3만 명… 11.6만→3.5만원 부담

정부가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철분 주사제도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간을 확대하고 임신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탍량 철분 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치료 효과가 있으면 급여가 1년까지 인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밀도 수준으로 호전돼도 골절 고위험군으로 판단해 최대 3년까지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다.

이번 개정에 따른 대상 환자 수는 4만5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을 줘 골절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복지부는 임신부,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암 환자 중 철 결핍 빈혈임에도 경구용 철분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약이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고탍량 철분 주사제 신약(성분명: 카르복시말토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이 신약은 한 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

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 다양한 여성 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환자는 14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환자 1인당 투약 비용은 1회 1병(20ml) 기준으로 약 11만6000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3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중급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을 돕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루리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최신간  
NEW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저자 : 송암(松巖) 권 태 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설도들과 신명찬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어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미목회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섬김으로 나아가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평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시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 시, 열두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시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원승가계발전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사학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명서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건축/인테리어/리모델링  
하루디자인&건축  
최윤곤(왜관제일교회 집사)

Tel. 054-973-0153  
Mobile. 010-4676-2314  
E-mail. sja7778@naver.com



### (이재흔 목사의 한국교회 살리기)

##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복음으로 그 능력이 구속사다. 택하신 은총을 입어도 구원은 복음에 순종해야 얻는 전제조건이 있는 명령이다. 말씀이 믿어져 따지지 않고 따르는 것이 복음 순종이고 구속사의 능력이며,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은 불순종일 뿐 자유도 아무것도 아니다.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은 문자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언약 이행의 능력을 보게 하고, 자기 생각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뜻을 듣고 보게 하며,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는 주의 영광 앞으로 나오게 하는 구주 예수의 선물이다. 복음이 공의대로 들리고 보이고 믿어져 따르게 하는 말씀의 깊은 샘이다. 구속사의 공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회개의 능력으로 학문일 수 없고 또 학문에 가두게 할 수도 없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다. 한국교회 앞에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미혹하는 종교의 넓은 길과, 검소와 감사로 구주 예수 따라가는 신앙의 좁은 길이 있다. 복음이 들리고 보여 믿어지게 하는 생명을 듣고 소유하고 흐르게 하기 바랍니다.

**강사 약력**  
생명수기도원 교회 담임(현)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장(현).  
제 1 예수복음부흥단 대표.  
총회부흥사회.  
홍신대학원 목회학 석사.

**강사 이재흔 목사.**  
소 :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4길32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생명수기도원.  
일 시 : 3~6, 9~12월 첫 주 월(오후 2시)~수(오후 5시)(숙식 가능).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전화 : 010-5432-7951.  
(선교계좌, 농협 302 0472 2140 31 이재흔)

## 청주시 상당구 교회매매

주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구말길 47-15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리(가지기) 229번지/ 229-1번지(지번)

면적  
\*대지-264(평) / \*토지-258(평) / \*총면적-522(평)  
\*사택- 28(평) / \*교회-46(평)

매매가격: 2억5천만원

<매물장점>  
1.청정지역입니다  
2.교회,기도원,수련원,요양원,전원생활지로 최적입니다.

연락처 ☎010-5622-8240

##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최고의 교수진(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여유 제도 있음. (수시접수)

과정	학제	지원 자격
신학부	(주/아/토요일) 8학기	·세례 받은 자 ·남녀 상관없이 사명이 뚜렷한 자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자는 편입 가능.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신대원	(주/아/토요일) 4학기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특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류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의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간반 운영.  
□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 수도권제대대학대학교와 협력교육기관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명서(졸업장사본)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신학,사회복지학,상담학,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5층(INCS평생교육원)

## 획기적인 글로벌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

기/승/전/치킨집 or 커피숍!?!  
국내 레드오션 NO!  
글로벌 비즈니스가 해답이다

세계1위가 될 사업도, 인류의 진보를 위한 계획도, 예산이 없다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이템은 있으나 예산이 없는 저를 도와주시면 예산은 갖고 계시나 아이템이 없는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2025년 사업완성  
국민은행 975901-00-026853  
헬프사람넷 조현철  
한구좌1억 8명 제한

\*투자진행시:번호사 공증 및 10%배당 서류전달 (단계별 수익 창출과정 일목요연 프로세스 제공함)

전화: 010-9897-2003

##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 부흥회 특징 ]  
불같은 찬양  
생수같은 말씀  
강력한 찬사  
우울증해결

장대수 목사  
시흥시원의 교회 담임장  
대한기독교부흥사의 대표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성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 특 징 ]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 교회건축&리모델링 세미나

## 주제 \_ 바라보는 교회건축

교회건축의 모든 것  
교회건축포럼

**2024.04.30(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B1층)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바로 앞 위치]

**2024.05.07(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3F 포럼 2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2 / 2호선, 동백역 1번출구 도보 15분]

- 참가비 : 30,000원(중식 및 기념품 증정)
- 우리은행 \_ 1005-604-628807 [예금주 : 교회건축포럼]
- 문의 및 등록
- 전화등록 : 070-4355-3308
- 문자등록 : 010-3966-1463
- [문자등록시 (1.교회명 / 2.등록자명(직분) / 3.참석인원 / 4.핸드폰번호)]
- info@cbuild.co.kr



**설계**  
(주)아진건축사사무소 최두길 대표

- 팬데믹 이후의 교회성장을 위한 설계
- 뉴노멀로서의 교회공간의 복합화
-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적 공간전략
- 신재생 녹색 환경의 교회



**미디어**  
(주)크리스시스템 박정민 실장

- 더 나은 유튜브 예배송을 위하여
- 방송장비 운영인력의 솔루션
- 대형 led 구축과 운영의 실제
- 일스틸링과 음향기술
- 연무대교회 7000여 조명 리뉴얼 사례
- 기독교 뮤지컬투어 방송 사례(수령교회/ 호신교회)



**인테리어**  
에스프리글로벌 최종민 대표

- 강력한 효율을 얻는 리모델링 사례 분석
- 예배를 돕는 공간 연출의 기준
-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 활용
- 건축환경과 인테리어의 중요성
- 라운지의 카페, 레스토랑 솔루션
- 3D 시각화를 통한 아이디어 적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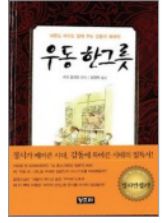


**CM**  
(주)라이건축사사무소 이범구 대표

- 교회건축 전문가가 사례를 통하여 전하는 교회건축의 올바른 방향
- 교회건축, 교회가 무엇이다
- 건축계약서 및 설계, 건축위원회가 잘 될
- 설계자의 업무, 시공자의 업무
-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 우동 한 그릇이 주는 감동

## 크리스천북뉴스 서평 '우동 한 그릇'



일본 작가 구리 료헤이가 쓴 <우동 한 그릇>(1989년)이라는 책이 있다. 1989년 2월 일본 국회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공명당의 오쿠보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이 아닌 이 소설책을 읽어서 화제였다. 의원들은 오쿠보 의원의 행위에 대해 비난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울었다고 한다. 예산 심의에서 <우동 한 그릇>를 낭독한 의원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함께한 의원들이 울면서 들었다는 것도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40여년 전에 창조사에서 번역해서 출판하고 있다.

<우동 한 그릇>은 여러 형식으로 각색되어서 출판되고 있고, 꾸준히 독자들에게 읽히는 스테디셀러이다. 우리 독서 모임에서 이 도서를 소개하고 요약한 부분을 목사가 읽었다. 낭독을 천천히 들으면 우리의 정서와 너무나 닮아 놀랐다. 그래서 일본인의 정서와 우리 정서가 동일하기를 질문하기도 했다.

<우동 한 그릇>은 북해정의 작은 우동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야기를 만든 소설이다. "2번 테이블"에 방문한 세 모자가 1인분을 주문했을 때 주인이 1.5인분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된다. 다음해에도 동일한 시간에 와서 동일한 조건으로 주문하자, 주인은 2번 테이블로 셋팅하며 3인분이 아닌 1.5인분으로 제공했다. 해가 가면서 북해정의 음식값이 올랐지만, 그 날에는 그 전 가격으로 서비스했고, 어김없이 방문한 사람을 2번 테이블에 1.5인분을 변하지 않는 가격으로 제공했다. 그리고 세 모

자 2인분을 주문했을 때 3인분으로 제공했다. 십 수년간 방문하지 않던 그들이 다시 방문해서 2번 테이블에서 3인분을 시키며 이야기가 종료된다. 2번 테이블은 항상 그들을 기다렸고, 변하지 않는 가격과 양으로 세 사람을 만났다. 너무나 짧은 대화이지만 너무나 깊고 복잡한 정서가 교감된다.

이심전심(以心傳心), 가장 감동적인 플롯인 것 같다. 주인이 가난한 손님에 대한 깊은 배려와 그 배려를 깊이 인지하는 손님의 말 없는 소통,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정(情)인데... 일본 소설에서 그것을 짧은 소설로 묘사했다. 우리 사회에 점점 정(情)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일본 소설로 그런 뉴스를 만나 조금은 의외였다. 세대 간 갈등,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는 우리 사회도 이심전심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조심스러운 마음과 작은 배려에서 깊은 정서의 교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감동이란 숨은 배려와 숨은 감사이다. 독서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우동 한 그릇>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고 했다. 그것은 우리의 정서와 융화가 되었다는 것인데, 문학의 힘일 것이다. 소설은 픽션이지만 인간의 정서에 깊음을 선물하는 것 같다.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선물은 매우 좋다. 지하철 의인의 감동, 소방대원의 감동적인 헌신들이 주는 감동과 다르게, 우동 한 그릇에서 오는 감동의 깊이가 또 다르게 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정작 사람을 알고 있지 않거나? 생각해 보았다.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동 한 그릇... 그러한 정서가 교감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천북뉴스 편집위원, 광주 주님의교회

## 5월, 작가들의 말말말



따스한 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는 꽃잎들 흩날리는 꽃잎처럼 끌고다에 쏟아진 그의 핏방울 내지를 아름답게 물들인 꽃잎처럼 그의 피가 우리 세상을 생명으로 물들였네. 꽃잎은 시들어 사라지나 그의 피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온 세상 영혼들의 타는 갈증을 잠재우네. 끌고다를 붉게 물들인 주의 피로 내 영혼을 충만히 적시소서, 당신의 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걸으며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바람에 포도송이가 흔들린다. 꽃이 피고 갈망이 맺히고 서서히 부풀어 보랏빛으로 물드는 것은 주께로 말미암음이니 가지가 햇빛을 찾을 필요 없고 빛물을 흡수할 필요 없네. 다만 할 일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바람에 열매 맺은 나무들의 기쁨이 날리고 농부의 입가에 흠뻑한 미소가 머문다. 정석영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흔히 국가 성립의 3대 요건으로 '영토, 주권, 국민'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상 대대로 부동산에 한이 맺혀서 그런지 하나님 나라를 영토 개념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자꾸만 천당이라는 장소를 강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영토 개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우선적으로 '주권, 통치권'을 가리킨다. 왕국(Kingdom)의 핵심 개념은 왕권(Kingship)이다. 일제 시대에 나라를 잃었다고 말할 때, 한반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주권을 빼앗겼다는 의미다. 따라서 복음이란 시한부 종말론처럼 한 많은 세상을 떠나 천당으로 이동하는 영세적 도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주기도문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정민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



누구에게나 있고 싶은 아픈 기억이 존재한다. 그 상처가 삶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오래도록 흉터로 남아 자신을 괴롭게도 한다. 하지만 그 기억을 회피하지 말고, 마주하며 자세히 들여다보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일, 그 상황,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다. 내가 받았없이 울었던 건 고집이 세서야 아니라, 엄마 나를 때렸고 그래서 버려졌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걸 그 깊은 거절감과 상실감으로 밤새 울었다는 걸, 울음을 그치지 않은 게 아니라, 그칠 수 없었다는 걸. 내 삶의 모든 궤적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 목적을 향해 차근차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이끄심이었다. 이제 확실히 안다. 내 달란트는 일대일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공감과 애절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세상엔, 말도 안 되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모습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조차도 실망스러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신애라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 낮은 자에게 가는 하향성의 삶

### 신간 '낮은 데로 가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곳은 낮은 곳이다. 저자 김관성 목사(울산 낮은담침례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낮아짐을 선택했다.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안정된 담임 목회를 내려 놓고 다시 한번 개혁의 길에 나섰다.



이 책은 저자가 개혁한 행신침례교회를 사임하기 전 나는 아모스서 설교 원고를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같이 자아와 욕망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개인 주의 신앙, 교회 안에서 종교 행위만 일삼는 형식주의 신앙인데 스스로 구원과 축복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종교 중독 현상, 하나님의 형

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멸시하고 착취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트린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일침을 가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경건이 무엇인가? 기도인가? 제사헌령인가? 성경공부인가? 예배인가? 헌금 많이 하는 것인가? 아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내팽개치고 다른 것을 잘하다가 망하게 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이 우리같이 죄 많고, 악하고, 죄 짓고 또 죄 짓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계속하는 가련하고 불쌍하고 한심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의 삶과 인생으로, 신앙으로 껴안길 바란다.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신약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똑같다. 우

리가 우리의 못남과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덮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를 덮어주신다. 그러나 인위적이고 화려한 종교 행사, 특정한 건물이나 세련된 연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착각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란다"며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 없는 이웃을 돌보는 일 없이, 뻔뻔로 와서 눈물과 정성과 헌금과 헌신을 약속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해서 움직여보려고 하는 가증한 죄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열매가 무엇인가? 나보다 비천하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고통스럽고, 나보다 눈물이 많고, 탄식도 많은 그 누군가를, 가능한 모든 수

단을 써서 그를 안아주고 섬기는 열매가 나타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평생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다. 캄캄한 우리 영혼의 눈이 떠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예배 그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는 열렬한 종교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며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준엄함의 정점은 바로 그들을 영적인 기갈 상태에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다. 죄악에 빠져 국가적 재난을 당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의 길을 찾고 돌아가기 위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대년도 결코 찾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 신간

## 하이힐을 신고 휠체어를 밀다



책 '하이힐을 신고 휠체어를 밀다(더봄)'는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엄마와 뇌성마비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는 일본에서 중증 뇌성마비 아들과 생활하면서 능

력개발 사업에 12년간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감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4년 전 저자는 사랑이란 이름의 폭언과 폭력이 무서워 부모님이 생각하는 좋은 딸이 되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런 자신을 마음속으로 경멸하던 저자는

만 열아홉 살 때 임신했다. 그리고 부모님을 뒤로한 채 집을 나왔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중증 뇌성마비였다.

아들이 중증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후 고통과 절망 앞에서 '오체불만족'을 읽고 힘을 얻은 저자는 자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

고,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어둠에서 헤멜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결심했다.

지금은 전국을 다니며 강연하고, 사람들에게 살아가야 할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수지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교회 젊은 책입니다. 박오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 매일묵상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2)

롬 6: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고 다시 산 나라는 것을 의식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세례 의식은 물속에서 한번 잠겼다 나오는 것으로 행했는데 우리가 받은 세례는 매우 간소한 것으로 머리에만 물을 조금 바르는데 침례교는 물 속에 한 번 잠겼다 나오는 정통방식을 여전히 고수합니다. 그러나 물 속에서 한번 잠겼다 나오든 머리에 물을 바르든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이고 세례의 의미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거듭난

의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더라도 그냥 받고 끝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고 다시 산 나라는 믿음을 분명히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이 있고, 세례를 자랑하는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산 나, 거듭난 나, 이전과는 다른 나로 살고 있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습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



암아 다시 산 나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제 나는 사랑에

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이 거듭남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죽은 그 죽음으로 내 죄의 모든 것이 다 장사 되었습

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죄의 세력과 이미 끊어졌습니다.

비록 나도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죄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비극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못한 모습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자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기 힘쓰기만 한다면 이전의 모든 죄된 모습, 못한 모습을 속히 벗어버리게 될 것이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낼 것을 확신합니다. 서광교회 제공

## 바이블지식IN

###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바람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격려가 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믿는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로마서 8:29)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까지 죽 지켜보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6).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편히 누워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이 책임을 다하는 것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영적 성장입니다.

1)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한 결과입니다. 로마서 12:1-2은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자기 헌신을 수반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새롭게 되고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레위는 세관을 즉시 떠났습니다 (마가복음 2:14);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세례만이 말할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함" (요한복음 3:30).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뜻 안에 우리를 맡기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광에 더욱 더 집중해야 합니다.

2)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삶을 사셨으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로마서 6:11)로 여기고 순수한 삶을 살아갈수록, 더욱 더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우리는 더욱 분명히 그리스도와 닮게 됩니다 (로마서 6:11-14).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요한복음 15:10) 희생적인 사랑 (요한복음 15:12-13), 고난을 견디는 것 (베드로전서 2:19-23)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도들의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1).

삶 속에서 죄를 억제하는 것에 관한 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시편 119:11),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며 (로마서 8:34, 히브리서 7:25),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로마서 8:4, 갈라디아서 5:16).

3)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은 크리스천의 성장에 따르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지혜와 지식에 있어 미숙하고, 은혜와 사랑의 경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요소에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베드로후서 3:18). "주께서...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전서 3:12).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18). 하지만, 언젠가 이 과정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일서 3:2). 미래에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그 자체로 지금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3).

갯케스천스 제공

##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119:64 NIV

The earth is filled with your love, Lord; teach me your decrees.

는 것이 좋음)

- teach : 목적이어를 2개(간접 and 직접) 취할 수 있음

- decree: 규례(規則)

- earth : 땅, 지면

- be filled with : ~으로 충만(充滿)하다 (1개의 단어라고 생각하고 외워두

(시편 119편 64절)

주님, 이 땅이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하오니, 저에게 당신의 규례를 가르치소서.

Psalm 105:1 NIV

Give praise to the Lord, proclaim his name; make known among the nations what he has done.

어 있어요.

※ 'make + 목적어(what he has done) + 과거분사(known)'의 구조

- praise: 찬찬, 찬사, 찬양(讚揚)

- proclaim: 선포(宣布)하다

- nation: 민족

☞ 'the nations':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민족들

- 'what he has done': 그가 지금까지 하신 것

☞ 현재완료 문장에는 대부분 '지금까지'라는 의미가 내포(內包)되

(시편 105편 1절)

주님께 찬양 드려라, 그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리하여 그가 지금까지 하신 것이 그 민족들 사이에 알려지게 하라.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광동제약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독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 선착순 500명 한정!}

※ 중량형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희의 진화 정성, 광동 쌍희진 30포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 강지윤 칼럼 자녀를 위한 반영적 경청의 훈련



강지윤 박사

주님의 대화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해 보니, 거의 대부분 반영적 경청, 혹은 공감적 경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깊이, 진실하게, 들어주는 일이 예수님의 주요 대화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그 중에 특히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 주요 조건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주님을 본받아 부모들이 먼저 반영적 경청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하나의 길이 됩니다. 부모들이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고,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자녀들에게 또다시 아름다운 본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1단계는 자녀가 자신의 문제나 감정을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자녀가 말이나 태도, 말씨, 또는 신체적 표현 등을 통하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단서를 전달하는 단계로, 자녀는 자기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면에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부호(상징)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부호(말, 태도,

말씨, 신체적 표현)를 부모에게 보내게 됩니다.

**2단계는 부모가 자녀의 감정 읽어서 말해 주는 단계입니다.**

부모는 이 부호를 듣게 되면 해석하는 과정에 착수하게 되는데 부모는 관찰한 부호(말, 태도, 말씨, 신체적 표현)를 해독하여 자녀가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지 추측해서 느끼거나 생각을 자녀에게 말해 주게 되는데, 이는 추측이나 추론일 뿐으로 때로는 부정확하게 해석한다든지 정확히 해석하였다 해도 기존의 대화법을 활용함으로써 걸림돌을 작용하게 되어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자신의 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주의를 집중하여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면 "나는 너를 걱정하고 있다. 너는 나에게 중요한 존재다. 너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3단계는 자녀의 감정 재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다시 받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재확인(예,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하고 그 감정을 거부하거나, 보다 분명한 신호를 다시 보내고자 합니다. 울기 전말할 경우 자녀는 "네. ...", "맞아요. ..." 등으로 피드백이 정확히 확인해 주는 말을 할 것이고, 잘못 추측했을 경우에는 "아니요. ...", "그렇지 않아요. ..." 등

으로 부모의 추측을 교정해 줌으로써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해야 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과 다르다면 분명 힘들고 어색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영적 경청의 효과는 너무나 큼니다.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양육권을 위임받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간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의 반영적 경청은 자녀를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키우게 됩니다. 감정 이입적인 정확한 반영적 경청을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태도를 전달하게 됩니다.

1. 나는 네 문제에 기여하지 않겠다.
  2. 그러나 네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3.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는 네 능력을 나는 믿는다.
  4. 네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네가 될 사랑 받는 것은 아니란다.
  5.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 부모의 위와 같은 태도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들 나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

어졌을 때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고 대견해 할 것입니다. 또한 반영적 경청은 자녀들이 자진 잠재 능력에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쳐서 부모들이 쥐고 있던 자녀들의 인생의 고삐를 다시 자녀들에게 넘겨주려고 애쓰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스스로 인생의 고삐를 잡음으로써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훨씬 잘 발휘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문제 해결사로서의 자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의 여러 문제에 모든 책임을 지고 뛰어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영적 경청을 하게 되면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과 생각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자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대화법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로운 영향을 끼쳤는지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좋은 부모야 한다는 잘못된 개념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영적 경청을 통하여 자녀를 스스로 자신의 일생을 끌어가도록 놔두고 도움을 원할 때만 도와주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항상 자녀들에게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부모자녀 사이에 문제없는 영역이 넓어지게 됨으로써 도움

을 주는 것(반영적 경청)을 즐기게 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 자녀의 감정이 많이 틀리더라도 계속하여 반영적 경청 방법을 사용하면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영적 경청을 통하여 자녀들이 자신만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사물을 인지하는 나름의 방법을 허용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느낌으로써 자녀를 위해서 도움이 중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자녀와 '더불어 있을 수는 있으나 자녀와 결합되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반영적 경청은 때때로 자녀의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자녀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때에도 그런 감정을 펼쳐버릴 수 있도록 돕게 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반영적 경청을 함으로써 자녀들을 스스로 빠져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스승이며 진정한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반영적 경청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실천하여 주님이 칭찬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감정을 발산시킨다. 감정은 억누르거나 잊으려고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솔직히 표현되면 지워져 버린다.
  2. 감정에 친숙해진다. 반영적 경청에 의해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받아들인다면 자녀도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게 된다.
  3. 사랑받는다. 총만감을 느낀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준다는 것은 어떤 일보다도 기쁜 일이고 자신의 가치감을 느끼게 해 준다.
  4.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다.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줄 때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게 된다.
  5. 자녀의 책임감이 강해진다.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말함으로써 그 문제를 철저하게 생각하게 된다. 자녀는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
  6. 자녀를 신뢰하게 된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처리해 가는 것을 봄으로써 자녀의 문제해결 능력을 신뢰하게 된다.
  7. 자녀는 독립적인 한 인간이 된다. 반영적 경청은 부모를 문제해결사에서 조력자의 위치로 바꿈으로써 자녀가 독립적인 한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강지윤 박사(심리상담학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 건강상식

## 무리한 다이어트가 변비 부른다

건강은 단지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잘 먹는 것만큼 잘 배변하는 것 역시 건강 유지에 중요한 요소다.

일반적으로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은 약 12-18시간에 걸쳐 영양분이 흡수되고 나머지는 장의 연동운동을 통해 변의 형태로 항문으로 빠져나간다. 장이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음식물이 장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8-24시간 정도로 정상적인 배변 횟수는 1일 1회부터 주3회 정도인데, 장의 연동운동이 활발하지 못한 경우 변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고, 수분이 빠져나가 변이 굳어지면서 변비가 발생하게 된다. 변비의 문제는 단순히 답답함에서 끝

나지 않는다. 배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장 내 노폐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가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피로나 두통, 피부 트러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변비가 만성화될 경우 불쾌감으로 인해 짜증이 늘고 업무의 능률이 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변비를 예방하는 것은 인체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변비 예방과 개선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다. 장내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져 변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성인의 경우 하루 8잔 정도가 적당하지만 수분

대사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부종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건강과 체질을 고려하여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한다. 식이섬유는 기본적으로 수분 흡수 능력이 뛰어나 변의 양을 늘리고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노폐물을 빨리 배출시키는 기능을 한다. 게다가 장내 유해물을 흡착해 배출시켜주므로 장을 정화하는데도 효과적이며,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을 증식시키는데도 좋다. 이외에도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며,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방해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주어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 식사량을 줄이기 마련인데, 무리한 소식은 금물이다. 식사량이 지나치게 줄면 변 자체의 양이 줄거나 수분, 식이섬유 등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장이 대변을 잘 밀어내지 못하고 변이 단단해져 변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이어트로 식사를 조절할 때는 식사량을 무리하게 줄이기보다 칼로리가 낮은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운동이 부족하면 장을 둘러싼 근육이 무력해지고 장이 처져 변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운동을 충분히 해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틈틈이 복부 마사지를 해주면 장의 연동운동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오른쪽 아랫배에서 시계 방향으로, 즉 장 속에서 대변이 진행되는 방향을 따라 주먹을 쥔 상태로 문질러 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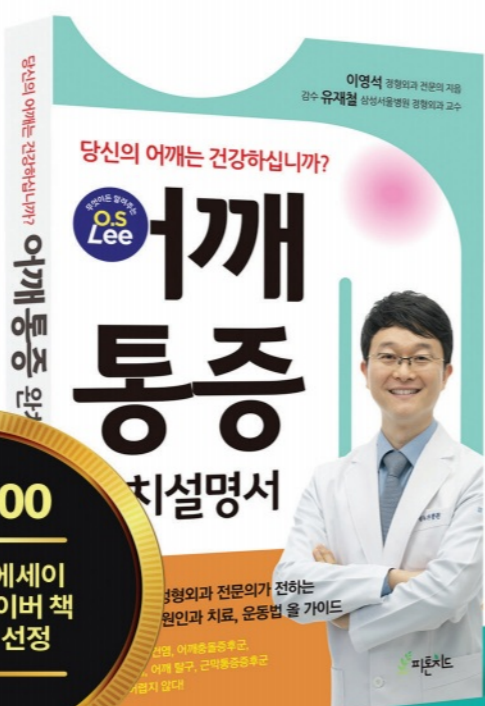
### 은혜 한 장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께서 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 이사야 41:10 -

#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능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 교회오빠 바울이 보는 하나님(2)

### 4.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신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이 결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은 그가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그는 오히려 마케도니아 근방의 트로아 지방으로 향했고, 결국에는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 베뢰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며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행 16:6-10). 그것은 바울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아시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권능을 알아보겠노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권능에 있기 때문이라고(고전 4:9, 10)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롬 1:10).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어떤 일을 지금 자신의 의지로 행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

나라면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그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롬 1:10-12). 그가 로마에 가고자 결심한 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었고, 또한 주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참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문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골 2:12).

그런즉 심는 자나 물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7)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간섭은 마친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기 위해 힘쓰는 것은 목사나 혹은 교사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없다면 믿음을 성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 5.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주도하신

분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주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16:26, 갈 3:8, 딤후 3:16).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기록된 말씀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 의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심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문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고 손으로 쓴 규례들 곧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규례들을 지우시고 그것들을 길에서 취하시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政事)들과 권능들을 노략하시라,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골 2:12-15)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위의 활동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입니다. 많은 거짓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

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예수 유일주의자(Jesusalism)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육신의 존재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made(만드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롬 1:3). 다시 말하면 하나님(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이 아들, 즉 예수님의 육신을 만드셨고, 또한 그분 안에 아들 하나님이 거하시므로서 세분의 속성이 함께 약속된 대로 사역을 완성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 일의 주도는 결코 예수님 한 분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킨 하나님 아버지(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갈 1:1)

공홀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죄를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엡 2:4,5)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또한 그 일을 완성하신 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또한 믿는 이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일으킨 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말씀하

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 세대를 통하여 이루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 6.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목적을 완성하셨다.

위의 주제와 매우 흡사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보다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시된 채 지나치게 예수님에게 치중하고 있는 예수 유일주의자들을 경계하고, 또 하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원론자들을 경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목적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한 시도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불교는 부처를 이용하고, 이슬람교도들은 모하메드를 이용하며, 유교도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을 이용하고, 카톨릭교도들은 그들의 교황과 사제, 그리고 하늘의 여왕으로 일컬어지는 마리아를 이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명백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대에 걸쳐서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공색한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방주를 지었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을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과 방주와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눅 24:44).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즉흥적이고,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언자들은 바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 곳곳에 예언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청암산 불독사

### 향유육합

## 온실가스의 주범

우리의 식탁에 온실가스의 주범이 있다. 바로 식량을 위한 농·축산업 온실가스이다.

국제 학술지 '플로스 기후(PLOS CLIMATE)'는 농·축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1~3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인구가 100억까지 증가할 경우 이 수치는 50~80%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벤자민 홀턴 미국 코넬대 생태학·생물진화학 교수 연구팀은 최근 과학계에서 발표된 농업 기술은 산업 현장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농업 생산단계 자체를 혁신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로써 매년 130억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된다.

일례로 미국 뉴욕시는 낙농업 농장의 거뭇을 전기로 변환하여

〈산마루서신 <http://www.sanletter.net>〉은 이 땅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을 감소시켰다.

최신 과학 기술을 농·축산업에 적용함으로써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룰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

# 시가서: 우리의 왕을 위한 예배

영어성경에서 시가서는, 시편과 아가사와 함께 히브리인의 지혜문학적 유희와 잠언과 전도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성소의 예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예배의 주제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은 시편과 같이 예배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에 시편에서는 예배의 기초인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합니다.



김영국 목사

젊은 예배자로서 그의 가족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족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오해로 그것 때문에 그는 혹독하게 시험을 받았습니니다. 그의 기도는 버려진 예배자의 호소입니다.

“전능자께서 나의 잘못을 보여주셔서 하라”(욘 3:35). 하나님의 대답은 욘이 “내가 주께 대하여 꾸로 듣기만 하였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욘 42:5)는 참회의 고백을 토로할 때 비로

소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이 회복 가운데서 나옵니다.

전도서를 쓴 우리의 스승은 인간의 애증의 명백한 무의미로 인하여 괴로워하지만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전 12:13)라는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으로 요약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니다.

잠언에서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동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잠언서의 상관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본적 원리입니다. 즉 순종은 축복을 가져오지만 불충은 곤경을 초래합니다.

아가서의 서정시는 왕과 신부 사이의 사랑을 축하합니다. 혼인의 관계는 하늘의 왕과 그의 소중한 백성과의 강한 결합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주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예배와 축하의 중심이 됩니다. 성소의 예배에서 시편은 제단의 제물과 함께 드러지는 찬양의 희생제물과 노래의 봉헌입니다.

다윗과 연계된 많은 간구의 시편이 유다의 왕을 대변하는 소리로 자주 낭송됩니다. 그러나 이 소리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시 162)라는 언약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재확인하며 대적들과 고난의 원인들로부터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실한 예배자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응답하시되 예배자의 공로 때문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바 그의 “한결같은 사랑”을 동반자에게 부여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초합니다.

찬양의 시편에서 공동체는 하나님을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시 95:3)으로서 높이고 그의 장대한 구원의 행위의 이야기를 선포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이 시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온의 성소를 찬

양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라!”(시 24:7)는 것이 회중의 소망이요 기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중에 보좌에 올림할 때 그는 그들 중에 자신의 임재를 인식시키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 46:10). 어떤 때는 환희의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마... 저가 임하실 것이라!”(시 96:11-13).

시편의 예배는 기도와 노래뿐만 아니라 굽혀 절하며, 손을 들고, 근엄한 행진과 축제의 춤과 하나님의 집을 향한 순례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도 거

행됩니다.

시편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통치를 명확하게 반영합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 더 주도면밀하게 정하여 놓으신 예배의 길과 방법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은 항상 기독교 예배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니다. 이 찬미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그가 우리에게 그의 생명과 축복을 전하여 주시는 대화와 영교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증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 ◆ 김영국 목사

대광고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 미국으로 이주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신학과 음악목회를 전공하였고 척 스윈돌 목사와 그의 음악목사인 하워드 스티븐슨의 영향을 받았으며 27년동안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의 큰빛한인교회서 사역했다. 지금은 음악목회연구원을 통해 그 사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음악목회 프로그램'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찬양과 경배'(한국장로교출판사)가 있다.

## 임재가 있는 예배의 길

예배팀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전의 어떤 예배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일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언제나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고웅일 목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요,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기회는 바로 성소의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갈 기회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므로 그동안 인류가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길을 여셨다. 사미론 관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피 흘림과 십자가의 죽음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먼저 그 길을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대가를 충족시켜 줄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까이 그 대가를 지급하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

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다. 하지만,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히 10:19-21)

때때로 회중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소리 지르고 눈물도 흘리지만, 그 예배가 끝난 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에 감격한 상태가 되지 않았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이다. 그 순간 회중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자칫 자기 연민을 통한 감정에 빠졌거나, 또 다른 감정적 요인이 작용했을 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아니다. 예배 인도자가 가장 많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과 부활이 그 예배 중심에 있는가?’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 ◆ 고웅일 목사

영남신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현재 미국 샌디에고(San Diego)에 거주하며 코워십 미니스트리(koworship.com)을 통해 지역교회들의 예배팀 성장을 돕고 있다.

## 사람을 살리는 노래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한자리”(삼상 18:7)

가끔 우리는 늘 들어왔던 이야기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으로 말씀에 접근하지만 때로는 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이고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목상을 하게 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도 오묘하다는 뜻을 실감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릴 때 점점 더 되풀이 되어가는 사울과 점점 더 기세등등하게 서가는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중 하나로 둘의 관계가 심한 갈등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그린 것이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언제부터 안 좋아졌는지 궁금해할 때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는 말씀을 통해 골라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다윗을 보고 난 후 둘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미워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한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른 노래를 통해서다. 사실 사울은 골라앗을 쓰러뜨릴 용맹한 이스라엘의 용사가 없음에 염려하던 차였고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위해 그곳을 지나가면서 골라앗과의 싸움을 자처했기에 다윗을 위해 투구와 갑옷까지 직접 씌



이세나

워주고 입혀주는 등 다윗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경계도 없었다. 하지만 다윗이 가져온 승리가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왔던 수많은 전쟁보다 더 큰 가치를 지녔는데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끝내는 불쾌한 마음까지 갖게 된 이유가, 여인들이 부른 노래 사건 이후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9절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이 자신을 제치고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왕이 될 것이라는 위협감을 느꼈다는 말의 함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다윗이 그러하였는가? 다윗은 사울의 감정 변화를 몰랐고 더더욱 사울에게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빼앗으려고 골라앗에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우리는 꼭 이 노래가 사울 이후 모든 행악들에 대한 피의라고만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오해여 사울에게 이런 노래가 성읍에서 들려올지라도 이성을 찾고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더라면, 즉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야 왕이 되는 것이며, 더욱 다윗을 다윗답게 대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진실하게 대했더라면 그의 미래

가 아마도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는 잘 안 되는 것임을 잘 안다. 어쩌면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도”고 불렀던 노래는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아니라 사람의 기를 죽이는 노래, 상처를 주는 노래, 한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노래가 아닌 서로를 비교하는 노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노래를 부를까?’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은가?

내가 쓴 ‘찬양에 수를 놓다’는 총 두 권으로 365개의 찬송에 관련한 주제를 담고 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찬송 이야기, 경건과 거룩에 관련한 노래들, 말씀에 비취 본 현대 예배음악(C.W.M)에 대한 비평적 에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게 함으로 어떻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의 노래가 되고 전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는지를 발견하게 할 것이다. 또한 영광스런 그날에 부를 새 노래와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예배와 찬송의 언어들을 살펴보고 있다.

### ◆ 이세나

호서대학교 기독교연예학과(음악예술학사), 서울장신 예배찬양사역대학원(예배찬양사역학 석사/M.W.M)을 졸업하여 논문 「크리스천 음악 아티스트의 정체성 연구(국내 보컬리스트를 중심으로)」를 발표했으며 2014년 개인 앨범 「자화상」, 2015년 「In A Refreshing Breeze」를 발표했다. 현재 크리스천 음악 작사, 작/편곡, 보컬디렉터 및 찬양사역자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 『찬양에 수를 놓다 1』, 『찬양에 수를 놓다 2』(쿠팡출판사)가 있다.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 조선에 성경 전해진 역사 보여주는 '존 로스 성경 역사극'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John Ross) 선교사가 조선인 동역자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여 조선에 전달한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창작극 '존 로스 성경 역사극'이 지난주 수원 '더사랑의교회에서 초연되었다.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가 대본을 쓴 이 뮤지컬 '존 로스 성경 역사극'에는 순교자의 소리에서 운영하는 유유 선교 학교에 다니는 탈북민 학생들과 현숙 폴리 대표, 순교자의 소리 CEO 에릭 폴리(Eric Foley) 목사, 순교자의 소리 북한 지역 담당 트레이버 폴리(Trevor Foley) 목사가 출연한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이 역사극이 탄생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

"2000년대 중반, 남한에 밀려오는 탈북민들이 북한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순교자의 소리는 탈북민을 북한 지하교인의 방식으로 훈련시키는 유유 지하선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의 설립 목적은 전 세계 어디든 북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탈북민 학생들이 다른 북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운영하며, 탈북민 1세대들(평균 연령 60세 이상)이 북한에 대한 정체성을 100% 갖고 있는 북한 사역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통무용가이자 전문적인 임상 심리 상담



존 로스 성경 역사극' 공연사진. ©한국 순교자의 소리



공연 중 부채춤을 추는 모습. ©한국 순교자의 소리

사인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2023년 초부터 유유 지하 선교학교에서 '바이블 댄스 테라피(Bible dance Therapy)' 수업을 시작했다.

"순교자의 소리의 '바이블 댄스 테라피' 교육 과정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한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존 로스 선교사와 함께 사용하셨던 북한 조상들의 기적적인 실화를 우리 탈북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는 탈북민들이 한국 무용과 드라마를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고,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치유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탈북민 학생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에 관하여 배우며 자긍심을 얻는 한편, 이

수업을 통해 탈북민 학생들의 감정이 치유되고 마음에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다. 현숙 폴리 대표는 "북한 동포를 향한 그분들의 전도의 열정에 더욱 뜨거워졌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수원 '더사랑의교회'의 초청으로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와 현숙 폴리 목사가 수요일 오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후, 존 로스 성경 역사극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공연에는 '더사랑의교회' 성도들 외에도 순교자의 소리에서 초청한 100여명의 손님이 참석했다.

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교회 제반 사항을 총괄한 '더사랑의교회' 지상훈 부목사는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역사극은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님과 조선 상인들의 역사적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존 로스 성경 번역에 참여한 조선인들은 처음에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어떤 면에서는 성경 번역 사역이 아니었다면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번역에 참여한 이 조선인들 각자에게 큰 관심을 갖고 인내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존 로스 선교사님의 모습을 세세하게 표현한 점이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상훈 목사는 서상훈, 이응찬, 이성하 같은 역사 인물에 표현한 탈북민 학생들과 이 공연을 위해 각색된 한국의 전통 부채춤 및 노래, 그리고 이 역사극을 위해 특별히 창작된 삼고무(三鼓舞)가

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 역사극에는 탈북민 학생들이 성경 번역과 선교 여행 사역을 전통 민요 '진도 아리랑'에 맞춰 개사하고 한국의 전통 타악기를 사용해 표현한 공연도 포함되어 있다.

지상훈 목사는 "연세가 60대와 70대인 탈북민 선생님들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대사를 외우고 연기를 익히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전문적인 연극 배우처럼 해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공연에는 용인에 위치한 기독교 대안학교 '더빛학교(The Light School)' 학생들도 참석했다. 존 로스 선교사와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에 관하여 공부하던 이 학생들은 순교자의 소리에서 자신들의 학교 근처에서 이 역사극을 공연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학교를 맡고 있는 고병익 목사는 "존 로스 성경 역사극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보부상에 불교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셨는가 보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다. 연극을 통해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신 부분들이 인상적 이었고, 또 연기하시는 탈북민 선생님들의 연기가 너무나 뛰어나고 재미있었다. 특히 존 로스 역할을 맡으신 '트레이버 목사님'이 한국 말을 너무 잘해서 감격 놀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존 로스 성경 역사극을 계속 공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2-2065-0703 이내래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 새벽예배 40 힐링송 50 신앙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조경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CBS 은혜의 시간 30 TV강단 군포제일(권태진)	00 말씀 관동 이음 목사의 성경 묵상기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 30 생명의 말씀/성령의 새벽찬양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5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00 생명의 양식 삼송(김형석) 30 주만찬 50 오늘 만나는 큐티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사예전강단
	7:00 00 CTS 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일감 35 생명의말씀-박석진 목사(포항장성교회) 50 생명의 말씀-이창교 목사(장원상남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비전설교 라이프처치 심상수 목사 50 비전설교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30 레알캠핑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30 믿음의 말씀 (김대조)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50 노년대화
	8:00 20 신앙예배 30 자판기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닌지 - 백석대 장종현 총장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 CBS 성서학당 (조성욱)	00 성지가 좋다 30 비전메시지 - 은혜드림교회 최민선 목사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다니엘 기도회	40 다크 더 로드	00 [말씀] 최성일 목사(지구촌교회)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십소)2	10 새롭게하소서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오로
	10:00 40 바이블 프로젝트	00 비전설교 선한목자교회 김다원 목사 30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요예배 생방송 이영훈 목사	20 은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	00 오직 주님만 솔로 40 CBS뉴스	00 선교는 지금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1:00 2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40 Miracle Moment 50 [생방송] CTS 뉴스	30 말씀의 센터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	00 [말씀] 임재경 목사(서부성결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레알캠핑	00 울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50 비전메시지 - 대양교회 최대한 목사
오후	12:00 30 생명의 말씀-유영택 감독(하늘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센터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영재교회)	00 TV강단 든든한(장항희) 30 TV강단 포도나무(여주봉)	20 비전메시지 - 청문교회 이필산 목사 50 말씀의 창 - 마리아타교회 이영은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이승희 목사(대구반야월교회) 30 신앙예배 4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50 Miracle Moment	00 말씀의 센터 군포사랑의교회 성권용 목사 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20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말씀의 창 - 구례제일교회 김명석 목사
	14:00 00 [생방송] 톨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GOODTV 시네마 레프트 비하인드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운	00 말씀의 힘 양곡(지용수) 30 새롭게하소서	00 백석의 센터
	15:00 4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센터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40 생명의 삶	20 영혼의 양식 양천(김동인) 30 TV강단 한성(도원욱)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6:00 30 생명의 말씀-김승룡 목사(한마음교회)	00 말씀의 센터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30 말씀의 센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성경 속 기독교 윤리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 요한계시록 13장 50 CBS 교회소식	00 내 삶의 행복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7:00 00 사랑의 시간-오정현 목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라클	00 말씀의 센터 순복음축복교회 오영대 목사 30 말씀의 센터 순복음금정교회 김형근 목사	30 [말씀] 김다원 목사(선한목자교회)	00 믿음의 대화 36.5 40 크리스천칼럼, 순복음원당(고경환)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00 성지가 좋다 3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18:00 00 생명의 말씀-김복이 목사(그레이스힐링교회) 30 신앙예배 40 부흥어게인	00 행복플러스 30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50 더 메시지	10 2024 목회사관학교 5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10 잘 믿고 잘 사는 법 30 TV강단 남양주한마음(남상진)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저녁	19:00 30 광림의 시간-김정석 감독	00 조용기 목사, 명설교	30 이스라엘로 (오십소)	00 TV강단 영광제일(이기용) 30 TV강단 정동제일(천영태)	00 말씀의 창 - 인천제2교회 노원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20:00 30 생명의 말씀-주진 목사(세한교회)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센터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	00 에메이징 그레이스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복음강단 - 서울은혜교회 김태규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내가 매일 기쁘게	0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30 다크 더 로드 50 GOODTV 뉴스	00 장동영교회 주일예배 50 예수가 전한 말복	00 CBS 성서학당 (조성욱) 50 CBS 뉴스	10 나의 십자가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22:00 30 백세특강	10 오 자유여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잊위의 서재 시즌2 50 저스트 텐 미닛 (달빛마을)	00 주만찬 20 오늘 만나는 큐티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3:00 00 [워킹온더바이블] 성경의 땅 20 CTS두란노 성경교실 50 신앙예배	10 2023 다니엘기도회	00 J.D. 그리어의 다윗의 삶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00 더 콜링 20 오늘 만나는 큐티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라바이츠워십
	24:00 00 톨링갓 58 지식인 미라클 세우다	00 젊은이의 예배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비전특강	00 CBS 아카데미 쇼 50 살롱 살롱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00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30 2023 다니엘기도회	00 GOODTV 오늘의 예배 30 월드미션투데이	00 [말씀] 이윤조 목사(갈보리교회) 4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0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 40 CBS 비전특강 이음 목사의 말씀 묵으로의 초대	00 선교는 지금 2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한밤의 찬양	00 명설교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30 이음 목사의 성경의 맥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	30 말씀의 힘 양곡(지용수)	00 THE 깊이 궁금한 신앙, 몰랐던 이야기 성지편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7000마라톤 열방을 향하여 케냐 / 김요한 선교사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00 GOODTV 특별강준	00 [Global Sermon] J.D. Greear's The Life Of David 30 [말씀] 유영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00 울포원	00 만나 워십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김선도 감독 20 오늘의 양식 30 스프링하우스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예능교회 조건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 50 CBS 교회소식	00 선교는 지금 5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